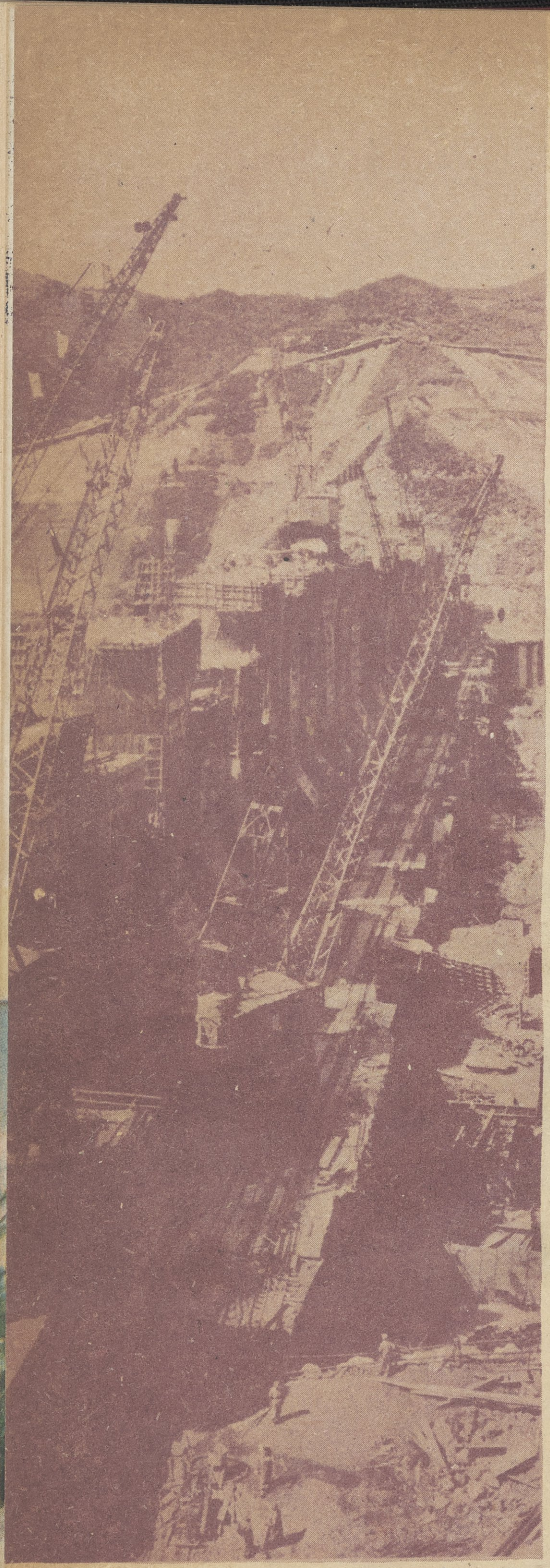


청년생활

9

1963



강계 청년 발전소 청년 건설자들은 일제때 같으면 10 여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제 1 계단 공사를 불과 4~5 년 동안에 해 제낌으로써 당에 의하여 육성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시위하고 있다.

청년들은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다.

전체 청년들이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라!

어떠한 난관도 용감히 극복하며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라!

청년들은 로력 전선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며 기술 혁신 운동에서 선구자가 되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호소문 중에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9
(168)
1963

차 례

표지 1 면 《동트는 아침》 마 상원 그림

권두언

혁명하는 나라의 젊은이 답게 살자!

오늘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한없는 기쁨과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는다.

지난 15 년간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위대한 전변으로 충만된 시기였으며 간고한 투쟁과 승리로 가득 찬 시대였었다.

조선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 밑에 주권을 자기 수중에 튼튼히 장악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였으며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 원쑤를 때려 눕히고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오늘 이 땅 우에는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된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힘 있고 문명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강력한 중공업과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고 억년 흉풍을 모르는 농촌을 가진 지상 락원, 전체 인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다 훌륭한 앞날을 건설하기 위하여 비상한 창조적 열성과 혁명적 랑만으로 들끓고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이 화목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어떤 풍파라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뭉친 나라, 오늘 우리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솟아 오른 우리 조국의 국제적 위신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실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우리 조국이 언제 오늘처럼 륭성 발전해 본 일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민족의 일대 번영기에 살고 있으며 우리 조국은 ·생기발랄하고 힘이 약동하는 부강한 나라로 되였다.

이 기간 우리 청년들의 처지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지난날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우리 나라 청년들이 오늘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밑에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공화국 각급 주권 기관에 피선된 1만 7천 여 명의 청년들, 각급 학교들에서 배우고 있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5만의 젊은 세대들, 수 많은 당, 정권, 교육 문화 기관에서 활동하는 젊은 간부들과 기술자, 예술인들의 대부대—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나라 청년들의 행복한 처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의 귀중함에 대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그렇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리익의 대표자이며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다.》(당 중앙 위원회 호소문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 조국, 이 주권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　*

지난 기간 우리 조국은 짧은 기간에 멀리 앞으로 달려 나왔다. 허나 우리 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하며 미제를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성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문제이다. 만약 혁명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싸우려는 사상적 준비가 충분히 되여 있지 않다면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혁명하는 나라의 젊은이답게 사상적 무장을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오늘의 혁명 정세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진행되며 지구 상의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시대,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여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진영은 걷잡을 수 없는 쇠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력사 발전의 이 합법칙적 추세를 저지시킬 힘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듯이 착취 계급은 결코 스스로 력사 무대에서 물러 나지 않으며 림종이 가까울수록 더욱 포악해진다.

국제 국내 정세의 최근 사태만 보더라도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평화》의 기만적 간판과 핵 시험 조약의 막 뒤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 등 지역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을 반대하는 소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대를 《평온한 시대》로 분식하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며 혁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리론》을 내놓으면서 인민들과 청년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해독적 작용을 놀고 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 세계 제국주의의 아성이며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고 있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파괴 말살하기 위

하여 각종 파괴 암해 책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혁명적 각성과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발광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정세는 우리들, 청년들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사상적 무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추호의 안일과 해이와 권태도 용허하지 않는다.

*　　*

오늘 우리 나라는 혁명하는 나라이며, 전진하는 나라이며, 승리하는 나라이다.

혁명하는 나라의 젊은이들인 만큼 우리는 우선 건전한 혁명적 생활 기풍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검박하게 살며 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지금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의 2천만 동포들이 해방의 날을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달성한 승리에 자만하거나 만족할 수 없으며 한시도 안일하게 지낼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온갖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들과 낡은 부르죠아적 생활 인습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모두가 다 검박하게 생활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적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150 페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혁명 선배들처럼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과거 항일 빨찌산들은 15여 성상 백두의 밀림 속에서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일념으로 투쟁하였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간고한 투쟁에서는 앞장에 서고 생활에서는 근면 검박한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더우기 원쑤들이 직접 눈 앞에 보이지 않는 평화적 건설의 시기, 또한 생활이 날로 유족해지는 오늘의 환경에서 만약 청년들이 자신의 수양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한다면 부화와 안일에 물젖을 수 있다. 때문에 청년들은 일상적인 수양과 혁명적 단련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수정주의의 온상인 온갖 부르죠아 사상과 퇴폐적인 생활 양식 특히는 양풍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오직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할 때에만 언제 어디서나 온갖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 요소를 제때에 식별하고 격파할 수 있으며 순경과 역경을 막론하고 추호의 동요 없이 능히 계급적 립장,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싸울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김 일성 동지의 로작과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적들의 준동에 대하여 최대의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혁명적 경각성—이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고상한 품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 정세의 절실한 요구이다.

청년들은 만일 우리의 원쑤들이 분별 없이 덤벼 든다면 놈들을 일격에 섬멸할 수 있는 준비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하는 나라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항상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항상 어떠한 일에서나 두려움을 모르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두에 서야 하며 미래의 주인답게 새것을 창조하며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용감하여야 하겠습니다.》(선집 5권 427 페지)

실로 우리들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젊은이들의 집단 속에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침체성과 답보를 모르며 난관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부단히 혁신하고 전진하는 창조력과 생활력이 충만되여야 한다.

강계 청년 발전소의 젊은 건설자들 앞에는 발전소 건설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 단층맥이 나타났었다.

이 때 그들은 이렇게 결의들을 다졌다.

《곤난 앞에서 물러 서고야 무슨 혁명 투사란 말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후손 만대에 넘겨 줄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를 쌓는 영광스러운 혁명 임무라고 할진대 난관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설 수 없다.》

그들은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설한풍과 싸우면서 암질이 푸실푸실한 단층맥을 파 들어 갔으며 밑바닥에서 물이 나오자 잠수정과 계단식 발파법을 도입하여 끝내 그것을 정복하였다. 만약 그들에게 사소한 동요와 소극성이라도 있었다면 일이 어찌 되겠는가? 발전소 건설 공사는 그 만큼 지연되였을 것이다.

더우기 우리 청년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란 맨주먹으로 일떠서서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을 쳐부시고 원쑤들의 계속되는 발악을 물리치고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며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락원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실생활에 구현하여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면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승리하는 나라의 젊은이들로서 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광활한 전망을 가지고 활기 있게 살아야 한다. 특히 영명한 수령 김 일성 동지를 모시고 로동당 시대에 사는 영예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슬기롭고 용감하고 재능 있는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하는 우리 시대에 와서 실로 세상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우리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 원쑤들을 때려 눕혔고 천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오늘 세계 인민들은 우리 인민을 《영웅적 인민》, 《재능 있고 근면한 인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민족적 긍지감과 자부심을 높임으로써만 아무리 곤난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당의 힘을 믿고 모든 곤난을 박차고 나갈 수 있으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해이됨이 없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며 락관에 충만되여 살며 싸워 나갈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선 인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위신을 전 세계에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바로 이것이 창건 열 다섯 돐을 맞는 자기 조국에 바치는 우리 젊은이들의 뜨거운 충성이며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하여야 할 응당한 의무이다.

모두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자!

공화국 영웅 리 병모 동무처럼 배우며 일하며 생활하자

지난 7월 30일 성천군 향풍 협동 농장 제1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리 병모 동무에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되였다.

조선 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과 민청원들의 앞장에 서서 고향 마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일에 온갖 충성을 다한 그는 마을의 알뜰한 살림'군이였으며 참된 애국자였다.

그는 19 세의 꽃다운 청춘을 바쳐 얼음이 깨져 깊은 물 속에 잠긴 두 소년을 구원함으로써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민청원으로서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모범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리 병모 동무는 1944년 10월, 신성천에서 최가란 지주놈의 농막살이를 하던 가난한 농민 리 정선(지금은 성천군 향풍 협동 농장 제 1 작업반장)의 맏아들로 태여난 후 1 년만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는 날로 륭성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고이 안겨 학교를 다녔으며 성천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61년에 자원하여 농촌에 진출하였다.

그의 짧은 생애에는 이렇다할만한 시련이나 특기할 일이란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기 한 달 전에 처음으로 공민증을 타서 가슴에 지니였으며 민청 위원장으로 일한 열 달 동안까지 모두 합쳐서 겨우 22 개월 간 혁명 대오에서 일하였을 뿐이다. 허나 그의 이 짧은 생애는 활화산처럼 애국의 열정으로 끓어 번진 그런 생애였다.

그는 바로 나라와 인민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조국과 인민 앞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는 어떻게 수행하고 고향 산천과 이웃과 집단과 계급은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가를 행동으로 훌륭히 보여 주었다.

당과 수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 마을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그의 생애는 우리 청년들의 참다운 구감이며 산 교과서이다.

○ ○

리 병모 동무의 짧고 순결한 생애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였다.

《…나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제도를 쓸어 없애며 조국 땅 우에 이루어진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과 혁명이 요구한다면 나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당원으로 받아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리 병모 동무가 입당 청원서를 준비하며 쓴 글이다.

그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념은 일상 생활 속에 훌륭히 실천되였었다.

한 달째나 장마가 계속되던 때였다. 강'가에 심은 뽕나무들이 모두 물에 잠겼다. 비는 계속 쏟아 붇고 뽕밭으로 가는 길은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누에는 올릴 때가 멀었는데 뽕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당 분세포 위원장 리 동환 동무는 병모 동무를 불러서 민청원들이 이 난관을 타개하는 선두에 설 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리 동환 동무의 말은 다만 의논조에 불과했으나 이 때 병모 동무는 벌써 이것을 당의 지시로 접수하였다.

《념려 마십시오. 제가 뽕을 꼭 보장하겠습니다.》

그 날 그는 부림소에게 받긴 소 관리공 오 춘순 아바이를 위하여 2백 그람이나 되는 피를 아무도 몰래 수혈하고 난 뒤 어릴'증이 나서 드러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내지도 않고 즉시에 마을 민청원들을 인솔하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산'길에 나섰다. 어떤 민청원들은 한밤'중에 산 속에서 산뽕을 찾아 낼 곤난을 생각하며 밝는 날에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 병모 동무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은 우리를 믿고 이 일을 맡겼소. 당의 지시는 법이오. 당 앞에서는 오직 〈네〉라는 대답이 있을 뿐이며 뼈가 부서져도 즉시적인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문고개, 바람데기, 성군바위를 지나 10 리'길도 넘는 송개'골에까지 가서 모두에게 타일러 가며 한 잎, 두 잎 따서 새벽녘까지 40 키로나 되는 짐을 만들어 지고 동무들과 함께 혁명 가요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 왔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에 감동된 당 분세포 위원장 리 동환 동무는 그에게 휴식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한참 후에 보니 그는 벌써 밭에 나가서 마을 청년들과 함께 웃고 노래 부르며 김을 매고 있었다.

실로 병모 동무는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당이 주는 과업 앞에서 힘들고 쉬움을 가늠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잘 시간이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았다. 해바라기처럼 당을 따르는 그의 심장은 오로지 당에 대한 충성심과 김 일성 동지의 붉은 전사가 되려는 일념으로 언제나 불타고 있었다.

○ ○

리 병모 동무는 나라와 인민을 깊이 사랑하고 국가 사회 재산을 귀중히 여기는 고향 마을의 참된 살림'군이였다.

《우리 인민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상 동지의 이 교시를 리 병모 동무는 자기의 일상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

하였다.

그는 마을 가까운 재'골 고개'마루에 올라 오래도록 서 있기를 즐겨하였다. 거기서 서쪽을 향해 서면 맑고 맑은 비루강과 현봉 산'줄기에 감싸여 포근히 들어 앉은 마을이며 포전들이 한눈에 안겨 왔다. 고향 땅의 이 정겨운 풍치에 취한듯 서 있노라면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리려는 끝 없는 꿈이 그의 머리속에서 구름처럼 무럭무럭 피여 오른다.

…저 송동에는 공원을 만들어 유치원, 탁아소를 옮겨 가고 저 등성이에는 문화 주택을 짓고 저 무네미에는 과수며 잣나무, 젓나무를 심고… 이런 병모이기에 그는 마을에 문화 주택 기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나섰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세포 위원장을 찾았다.

《문화 주택들은 둔덕 마을 뒤'등성이에 지읍시다. 거기서는 비루강과 논'벌이 훤히 바라보이고 겨울이면 바람막이가 좋습니다. 큰 산소 뒤는 습하니까 잣나무와 젓나무를 심고, 강'가에는 방풍림을 조성하고, 마을의 한복판에는 길을 쭉 빼고 량 옆에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읍시다. …우리 민청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마을의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잘 가꾸리라는 숭고한 생각이 그의 가슴을 태웠던 것이다.

그에게는 비'물에 패인 밭머리의 홈채기를 메꾸는 것도 내 일이였고 아침저녁 채종포를 돌보는 것도 내 일이였으며 길'바닥에 솟아 오른 돌'부리를 파 던지는 것도 내 일이였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오 관균 로인은 질통에 삽을 메고 송동이라고 부르는 솔밭으로 오르는 웬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상해서 뒤쫓아 올라 간 로인은 거기에서 땅 우에 솟아 오른 소나무 뿌리에 흙을 져다가 덮어 주고 있는 리 병모 동무를 보았다. 이에 무한히 감동된 로인은 한달음에 마을로 내려 가 잠자는 민청원들을 데리고 올라 와 함께 흙을 날라다가 소나무 뿌리를 덮어 주며 《누구나 이래야 하거던… 알겠나? 이 사람들, 수상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애국주의란 거네…》하고 곱씹어 외웠다.

마을 사람들과 민청원들에게 한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고향 산천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 전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제것이라고 부를만한 아무것도 없이 살아 왔습니다. 밭도 논도 착취자들의 것이였고, 산도, 강도 남의 것이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세상의 재부이며 꽃이 아닙니까? 이것을 더 잘 가꾸고 더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응당히 해야 할 일입니다.》

○ ○

《우리 나라의 미래는 당신들에게 달리여 있습니다. 위대한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당신들은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수상 동지의 이 교시는 리 병모 동무의 생활에서 커다란 지침으로 되였다.

그는 어린 몸으로 바쁜 영농 작업을 해 나가는 나날에도 단 하루도 자기의 학습 과제를 어겨 본 일이 없었다. 길을 걸어도 책, 포전에 나가도 책, 회의장에 가서 개회를 기다리는 토막 시간에도 책이였다. 깊은 밤 그의 어머니는 책을 안은 채 책상 머리에 앉아 잠든 아들을 자리 우에 안아 눕히는 시중을 한두 번만 들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수상 동지의 로작들과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 1 년 반 남짓한 사이에 150여 제목의 회상기를 학습하고 그 사상을 발취했으며 《김 일성 선집》을 두 번 반복해 학습하였고 《조선 통사》를 세 번 탐독하였다.

그는 누구나가 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해야 한다는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느끼고 기술 학습에 힘을 기울여 불과 1 년 동안에 여덟 과목이나 합격하였다.

《학습을 안 하는 날은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

그는 동무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소박한 말로 표현하였다.

○ ○

리 병모 동무는 자신보다 먼저 집단과 인민을 생각하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고상한 도덕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바치는 것을 더 없이 보람찬 일로 생각했으며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밖에 나가서는 로인들을 존경하였다.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웃벌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열 번 만나드라도 공손히 인사하였고 동무들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상냥하게 웃으며 대했다.

인민군 후방 가족의 집에 찾아 가서는 이영을 이여 주고 바자를 해 주고 부엌을 고쳐 주었으며 탁아소와 유치원에 찾아 가서는 아이들이 깨끗하고 유쾌하게 놀라고 모래를 지여다 마당에 깔아 주었으며 꽃밭을 만들어 주고 미끄럼'대를 만들어 주었다. 실로 온 마을이 그의 집이였으며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의 친기 동생이였다.

바로 그와 같은 병모 동무였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던 것이다.

지난 해 12월 17일, 학교에 갔다 돌아오던 마을의 리 선준 소년이 벼랑 바위 앞에서 얼음을 타다가 그만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비루강에 빠졌다. 뒤 딸아 오던 오 정남이란 소년도 선준이를 구하려다가 또 빠졌다.

송동 탈곡장에 가던 중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리 병모 동무는 한달음에 현장으로 치달아 갔다. 그리고는 400 메터나 되는 거리를 뛰여 왔다는 생각도, 무거운 겉옷이라도 벗어야 한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고 물에 첨벙 뛰여 들었다. 물은 이 외에도 깊었다. 그는 한손으로 얼음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선준이를 받들어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엷은 얼음은 이내 꺼져 버렸다.

다음 번에도, 그 다음 번에도…실패는 거듭되였다. 몸은 얼어 들고 세찬 물'살은 이겨 내기 힘들었다. 그는 몽롱히 의식이 사라져 감을 느꼈다. 그러나 어찌 사랑하는 두 동생을 물 속에 그냥 두랴!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끝내나 두 소년의 엉치를 떠밀어 올려 구원했으나 그 자신은 결국 심장 마비로 다시는 물 우에 솟구치지 못 하고 말았다.

○ ○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아들 리 병모 동무는 바로 이렇게 당과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직하고 나라와 인민을 깊이 사랑하며 학습에 열중하는 높은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모두 리 병모 동무처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직한 김 일성 동지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 한다.



새형의 청춘들

—우리 당 4 차 대회가 민청 단체 앞에 지, 덕, 체 과업을 제시한지 2 년이 되였다. 중앙 통계국 기계 계산 공장 민청 단체는 이 두 해 동안에 대회가 제시한 과업 관철에 전력을 기우린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식 있고 쓸모 있는 인재로!



중앙 통계국 기계 계산 공장에 들어 서니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친밀감부터 앞섰다. 기자는 바로 두 해 전에 이 공장을 한 번 찾아 온 일이 있였던 것이다.

때마침 하루 작업이 끝난 후인데 당력사 연구실에는 숱한 민청원들이 모여 앉아 학습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었다. 한편 책상에 마주 앉아서 《김 일성 선집》을 발췌하고 있는 김 명자 동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기자는 불연듯 2 년 전 일이 회상되였다. 당시 그가 얼굴을 붉히며 민청 위원장에게 내민 회상기 학습장엔 내용을 발췌한다는 것이 전문을 그 대로 베끼다 싶히 하고 있었다. 그러고도 그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하던 명자 동무가 오늘은 선집을 어느 대학생 못지 않게 체계를 세우면서 척척 발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중요한 교시는 부문별 카드까지 작성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놀라운 발전은 결코 명자 동무 혼자만이 아니였다. 알고 보니 학습이라면 머리부터 먼저 아파난다고 하던 최 금주 동무 역시 지금은 학습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있었다.

무엇이 과연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인가!

이에 대하여 민청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제 4 차 당 대회가 있은 직후였다. 민청 단체는 우선 대회가 제시한 대로 청년들을 지식 있고 유능한 역군으로 키우는 데 모를 박고 달라붙었다.

처음엔 민청원들 속에서 하루 두 시간 이상의 학습을 정상화하는 기풍부터 확립하였다. 민청 단체는 매개 민청원들이 자신의 력량에 맞는 주 학습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엄격히 총화하는 방법으로 해 나갔다. 또한 회의 장소나 작업 장소에 이동 도서함을 설치하고 그들 속에서 짬만 있으면 독서하는 기풍을 확립하고 어디로 가면 책을 지니고 다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정하게 학습 분위기가 선 다음 민청 단체는 매 개인의 특성에 맞는 옳바른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실례로 비교적 수준이 어린 김 명자 동무는 학습에서 우수한 리 춘매 동무에게 개별 분공을 주어 지도하도록 하였다.

민청 단체에서 분공을 맡은 춘매 동무는 우선 명자 동무에게 회상기 학습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며 기본 사상을 체득하도록 지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명자 동무에게 내용을 명확히 발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도를 취하였다. 춘매 동무는 우선 자신의 회상기 학습장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명자 동무의 학습 태도는 차츰 눈에 띄우게 심중하게 되였고 몇 번이고 숙독하면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력력히 보이였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오래 가는 과정에서 명자 동무에겐 어느 정도 학습에서 남에게 의존하려는 의뢰심이 나타났다. 그것은 자기는 발췌하지 않고 있다가 춘매 동무의 노트를 그냥 베끼려는 경향이였다.

이것을 포착한 민청 단체는 두 동무에게 서로 다른 제목을 주어 발췌하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명자 동무의 독자성을 키우도록 세심한 방조를 주었다. 그 후 명자 동무는 능히 자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랐다.

바로 이렇게 민청 단체는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 매개 민청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였다. 그런 결과 2 년 전만 하여도 80 명의 민청원 중 과반수의 동무들이 학습에서 매우 어린 동무들이였으나 지금은 그들 전부가 명자 동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곳 민청 단체에서는 지금 정상적인 독서 기풍과 학습 기풍이 확립되였다. 당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전체 민청원들이 한사람 같이 심혈을 기우려 학습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동무들이 《김 일성 선집》의 발췌를 다 끝냈으며 평균 80여 제목 이상의 회상기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발췌했으며 전체 민청원들이 년 평균 90 권 이상의 서적을 독파하였다.

민청 단체는 또한 민청원들의 기술 학습에도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민청 단체는 기술 학습에서 전망적인 목표를 세우고 준경제사의 자격을 가진 동무는 경제사가 되고, 자격을 못 가진 동무들은 준경제사가 되자는 구호를 내세웠다. 민청 단체는 우선 대학이나 고등 경제 전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동무들은 야간이나 통신망에 망라하도록 추천해 주는 한편 그 남어지 동무들은 전체가 국가 자격 검정 시험에 망라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면서 민청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중심을 두고 구체적으로 짜고 들었다. 여기에서 매개 동무들이 다음 분기에 칠 시험 과목을 토의에 붙혀 통일시켰다. 그리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학습 체계를 수립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을 집체적인 강의의 날로 정하고 목적 지향성 있게 이끌고 갔다.

강사는 이미 경제사나 준경제사의 자격을 가진 동무들이 출연하되 그들이 제강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방조하였다. 한편으로 상업 고등 경제 학교와 중앙 도서관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교재를 적극 보장해 주었다.

민청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에 의하여 오늘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망라된 전체 동무들이 두 과목 이상이나 합격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이들은 2~3 년 내로 모두가 경제사, 준경제사의 자격을 가질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더욱 이악하게 학습하고 있다.

흘러 넘치는 청춘의 활기



우리가 당 력사 연구실에서 나왔을 때 공장 마당에서는 배구 경기며 그네 뛰기, 널뛰기 등 각종 체육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공장 건물의 한 바람벽에는 인민 체력 검정 제 1 급 기준표가 줄느런히 붙어 있었다. 그 기준표들을 보면서 민청 위원장은

《2 급은 벌써 작년에 전체 동무들이 다 합격하고 그 중 55 %의 동무들은 1 급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1 급 기준표들은 나머지 동무들을 고무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청 단체가 청년들을 튼튼한 체력을 가진 일군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초기이다. 민청 단체는 우선 아침 조기 체조와 달리기 운동을 정상화하며 모든 동무들이 인민 체력 검정 1 급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청원들의 거이 전부가 녀성들임으로 일이 쉽게는 되지 않았다. 민청 단체는 《건강과 장수》,《건강과 국방》 지어는 《한 번의 조기 체조는 우유 한 고뿌에 대등한 가치를 가진다》 등 무려 37 제목이나 되는 제강을 가지고 민청원들에게 출연하여 그들의 체육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혀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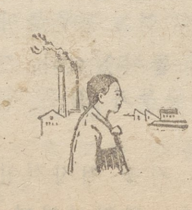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 동무들 중에는 여전히 《몸이 아프오.》,《달리기 운동을 하고 나면 아침 일에 지장이 있소.》 등 구실을 붙이면서 체육 사업에 잘 동원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민청 단체는 그들을 실지 모범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민청 단체는 팔목에 약간한 관절염이 있다고 체육에 잘 참가하지 않는 최 금자 동무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에게 손목 관절염의 치료 체육으로 되는 탁구 운동을 권고하였다. 금자 동무는 처음엔 좀 서먹서먹해 했으나 민청 단체가 자꾸 권하고 친절히 돌봐 주는 데 감동되여 나중에는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그런 결과 그는 몇 달이 못 가서 그 관절염이 말끔히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구역 탁구 경기에서 1 등의 영예까지 지니였다.

이 사실은 종래까지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던 민청원들을 크게 뉘우치게 하였다. 동작이 굼떠서 체육을 해낼 것 같지 않다고 하던 주 인호 동무까지도 내중에는 열성적인 체육 애호가가 되였으며 인민 체력 검정에서 단번에 제 1 급의 수준에 올라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이곳 민청 단체는 작년에 벌써 인민 체력 검정에서 전국적으로 제 2 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그네 뛰기와 널 뛰기에서도 평양시적으로 제 2 위를 쟁취하였다.

붉은 꽃은 만발한다



우리가 복도를 지날 때 한 처녀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지났다.

《저 동무는 김 윤자 동무입니다. 보통 처녀가 아닙지요.》 하고 말한 민청 위원장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바로 남의 애로를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던지 아끼지 않는 동무라는 것이다.

한 번은 그가 가정 부인인 유 금옥 동무가 야간 고등 경제 학교에 입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자 그의 머리엔 가정 부인에게는 할 일도 많겠는데 공부할 시간이 심히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떠 올랐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부터 유 금옥 동무의 가정에 찾아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유 금옥 동무의 일을 부지런히 도와 그의 공부할 시간을 될수록 많이 얻도록 하여 주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유 금옥 동무가 학교에 들어 간 후에도 그의 학습을 도와 주기 위해 김장도 해주며 가사 일도 도와 주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모든 힘을 다해 가면서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김 윤자 동무 한 사람에게만 한하지 않았다. 제조 작업반 반장 동무의 아이가 오래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민청원들은 몸이 허약한 아주머니의 일을 서로 번갈아 가며 도와 주었고 아이에게 수혈이 필요하게 되자 서로 앞을 다투어 수혈을 보장해 주었다 한다. 실로 이 곳 민청원들의 공산주의 도덕 품성은 날을 따라 활짝 꽃피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까지는 민청 단체의 적지 않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 민청 단체는 우선 혁명 전통 교양에 중심을 두면서 긍정과 모범을 통한 감화 교양에 각별한 힘을 경주하였다.

하루는 한 민청원이 수직을 서다가 조은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민청 단체는 회상기 《불무지 보초》에 대한 감상 모임을 조직하였다. 그런 결과 민청원들 속에서는 원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민청원 문순자 동무가 자기 일에서 적극성이 부족하고 안일해질라는 싹이 보였을 때 민청 단체는 이를 제때에 포착하고 《혁명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설정하고 광범한 학습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이렇듯 민청 단체의 구체적이고도 진공적인 교양 방법은 결국 훌륭하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어느덧 휴게실에서는 가야금 병창을 하는 음악 소리와 꾀꼴이 같은 처녀들의 맑은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곳 민청 단체에서는 군중 문화 예술 활동도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이 사업에서 우선 민청 단체는 기동 선동대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문학 예술 활동에 전체 청년들이 광범히 망라 되도록 각별히 지도하였다.

실례로 박 행란 동무에게는 출판물에 나오는 재담들을 민청 단체의 실정에 맞게 고치도록 분공을 주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독자적으로 재담을 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렸으며 무용에 소질이 있는 요 수자 동무에겐 청년 극장 배우들과 련계를 취해 줌으로써 오늘은 자체로 안무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로 이끌어 올렸다.

이와 같은 민청 단체의 로력은 거이 대부분의 민청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며, 안무도 할 수 있게 하였다.

민청 위원장과 헤여져 공장을 나올 때 민청원들이 악기를 타는 소리와 처녀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더욱 명랑하게 멀리 메아리쳐 갔다.

바로 이렇게 중앙 통계국 기계 계산 공장 민청원들은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지, 덕, 체 과업을 받들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발전되여 가고 있다.

본사 기자 하 만춘

실 화



길이 전하라, 은행 나무여!

황해남도 연안군 소정리의 낫으막한 언덕 우에는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높이 서 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임진 왜란 때 연안 땅에 기여 든 적들을 격파한 의병들의 전공을 기념하여 심은 나무라고도 하고 또한 이곳 장씨 촌의 17 대 조 장 효지가 서울서 례조판서를 지내다가 여기로 락향하면서 심은 것이라고도 하나 그 누구도 이 나무의 래력을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나무가 몇백년의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곳 한 우물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 나는 온갖 희비극을 목격해 왔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곳 한 우물마을 장 형태 일가의 지난 날에 대해서만이라도 더듬어 보기로 하자!

× ×

지금부터 70여 년 전의 어느 가을 날, 이 은행나무 밑에서는 량반, 부자 놈들의 술놀이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례조판서 장 효지의 먼 후손인 장 진사가 통량갓을 쓰고 복판에 앉아 있었다. 그 놈은 옥색 도포 우에 드리운 비'자루 같은 수염을 연신 쓰다듬으며 제법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자! 저 서해 물이 줄문 줄었지 우리 집 술이 모자라겠소. 어서들 드오.》

바로 이렇게 량반 지주놈들이 배불리 처먹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을 때 마을 안에서는 일년 내 지은 곡식을 놈들에게 말끔히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다. 그들 중에는 스물 다섯 살 먹은 떠거머리 총각 장 응삼이도 늙은 어머니와 함께 섞이여 있었다.

대대로 조상들의 백골이 묻힌 땅을 떠나는 그의 마음인들 오죽하랴. 응삼이는 언덕 우 지주놈들의 놀이터를 무서운 눈'길로 노려보면서 마음 속으로 웨쳤다.

《개놈들, 어디 보자!》

그는 원래 지주 장 진사의 열 촌 안벌되는 친척으로서 그 놈의 논 열 마지기를 얻어 붙였다. 동삐가 휘게 일하여 겨우 20 석의 수확을 냈는데 그 중 10 석은 도지로 물고 두 섬은 종자'대로, 너 섬은 환상미와 추렴세로 물고 나니 겨우 3~4 석이 남았다. 그런 것을 자기들 모자 간의 인두세 (人頭稅)와 죽은 아버지의 몫으로 바치는 백골징포(白骨徵布)까지 바치고 나니 정말 남은 것이 없었다. 게다가 의리도 정분도 모르는 장 진사는 언젠가 그의 아버지가 생존 시에 꿔 쓴 빚까지 내라고 야단이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고마한 오막살이까지 팔아 그 빚을 물고 나니 살'길이 막혀 버렸다. 그래서 지금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고 장 진사 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 들어 죽고 못 살게 되였던 것인가! 지난 해에만도 이웃의 황 첨지가 그 놈의 빚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고 가난한 소작인 장 의현의 안해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 하여 꽃다운 청춘에 목을 매 달고 죽었다.

응삼이는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겨 놓았다.

고향을 떠난 후 이리 저리 류랑하다가 정착한 곳은 배천땅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배천 갑부 조 참봉의 행랑살이로 들어 갔다. 그는 원한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손톱 발톱이 다 닳도록 일했으나 가난은 날로 더하여 갔다. 그가 림종할 때 남은 것이란 겨우 헌 누더기 한 벌 밖에 없었다. 그는 림종의 신음 속에 어린 두 아들(원태, 형태)을 머리맡에 앉혀 놓고 말했다.

《내 어떻게든 돈을 벌어 잘 살아 볼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너희들께 남겨 줄 게라곤 아무 것두 없구나, 너이들이나 장차 잘 살아 이 애비의 원을 풀어 다오.》

그 때 열한 살 난 원태와 아홉살 난 형태는 아버지의 가슴을 흔들며 애타게 불렀으나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 했다.

× ×

그 후 세월은 흘러 이 땅엔 왜놈들이 기여 들었다.

은행나무 밑에서는 날마다 여전히 주홍이 벌어지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란 몇해 전에 죽은 장 진사가 앉았던 복판 자리에 그의 맏아들 장 대식이가 앉았고 모여 온 주객들로는 봉건 량반들 대신에 왜놈 순사며 면장 따위들이고 케케 묵은 풍월 대신에 구린내 나는 진식 류행가 따위가 불리워지는 것 뿐이였다.

어느날 마을로는 몇 십년 전 고향을 떠난 장 응삼의 두 아들 원태네와 형태네 일가가 초라한 행색이 되여 돌아 왔다.

그들은 어찌 하여 이 저주로운 땅에 또다시 발을 딛게 됐는가? 사연은 이러하였다.

두 아들을 남기고 응삼이가 원한 많은 세상을 떠난 며칠 후 어느 비 오는 날 그들의 오막살이에 조 참봉놈이 나타났다. 그 놈은 응삼이의 안해에게 말했다.

《임자네들, 인젠 응삼이도 죽고 그 땅 다루기가 힘 들 거네. 그래서 임자네들이 붙이던 땅과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네.》

《뭣이라구요?》

그야말로 청천 벽력이였다. 응삼이의 안해는 그 놈에게 맞섰다.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못 내놓겠소다.》

그러자 조 참봉의 얼굴은 대번에 붉으락 푸르락해졌다.

《뭣이 어째. 제 땅 가지고 제 마음 대로 하는데 무슨 시비질이냐! 당장 나가라!》

응삼의 안해는 결'김에 말했다.

《원! 정녕 나가라면 나가리다.》

그는 지주놈 보란 듯이 약간의 짐을 꾸둥쳐이고 두 아들의 손목을 잡고 밖에 나섰다. 소낙비 내리는 한지에 쫓겨 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 지 향방을 알'길이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비'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여 흘러 내렸다.

그 때부터 말 못할 재난은 련일 들씌워졌다. 마을 집 사랑채 한 간을 얻고 어머니는 삯품팔이, 삯빨래질로 세월을 보내고 원태는 나무를 해 들였다. 그래도 하는 수 없어 아홉 살짜리 형태를 남의 집에 주게 되였다.

형태는 남의 집에 끌려 가서 매'속에서 날을 보내며 매'속에서 자랐다. 한 번은 오양간에 맨 소가 달아난 일이 있었다. 주인놈은 형태가 소를 잘 못 비끌어 맨 탓이라고 장작깨비로 그를 때린 후 당장 소를 찾아 오라고 내쫓아 아홉 살짜리 어린 것은 온 밤 산'속을 헤매며 울었다. 그런데 새벽에 겨우 심산 속에서 소를 찾아 가지고 돌아 오니 이 번엔 소를 못 쓰게 만들었다고 주인놈은 또 그를 때렸다. 이래도 매질이고 저래도 매질이였다. 그는 코피를 쏟고 자리에 누워 며칠간은 일지도 못 했다. 주인 년놈들은 그가 물 한 모금 달래도 《무슨 팔자에 일도 안 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야단 쳤다.

가난 속에서도 두 애는 성장하여 차츰 어른이 되였다. 그러자 조 참봉은 또 그들을 한 뉘 머슴으로 얽어매고 싶었다. 어느 날 그 놈은 사람을 시켜서 원태와 형태를 불렀다.

《이 사람들, 자네 선친 때 우리 집에서 진 빚이 있네. 벌써 받았서야 되였겠지만 인정 상 차마 그럴 수야 있어야지. 정녕 못 갚겠으면 일이라도 해 주게.》

이 얼마나 뻔뻔스런 놈인가! 그 놈은 있지도 않는 빚을 조작하여 두 형제를 또다시 종신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뭐, 빚이라구요. 되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집 일을 수십년 간이나 거저 해 준 품삯이나 내시유.》

두 형제는 이렇게 조 참봉에게 맞섰다. 그러자 조 참봉의 큰 아들놈이 원태의 뺨을 철썩 갈겼다.

《이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대답질이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원태는 그 놈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놈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작당해 가지고 개떼처럼 덤벼 들었다. 두 형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며 놈들을 때리고 차 구부리였다.

며칠 후 그들은 왜놈 순사부장놈에게 불리워 갔다. 조 참봉 놈이 고자질 했던 것이다. 이날 두 형제는 그 놈에게서 모진 매를 맞았다. 그들은 속으로 복수할 날을 옥옥 별렀다.

드디여 그 날은 왔다. 어느 어스름한 저녁에 형태가 마을 앞 내'가에서 풀을 베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전거 탄 놈이 나타났다. 안경 알이 번뜩이는 게 분명히 그 순사부장놈이였다. 그 놈은 장마로 물이 불은 내'가에 이르더니 껑충 뛰여 내려 형태를 오라고 하였다.

《자전거나 나나 업어서 강이나 건네소.》

옳지, 이 때다! 그 놈을 등에 슬쩍 업고 강에 들어 선 형태는 물이 깊은 곳에 들어 서자 돌에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그 놈을 업은 채 풍덩 나자빠졌다. 그리고는 그놈의 목줄띠를 눌렀다. 놈은 한참이나 바둥거리더니 잠잠해졌다. 형태는 자전거마저 그 물 속에 집어 넣고 그 자리를 피했다. 말 못할 통쾌감이 전신에 찌르르 흘렀다.



그 후 두 형제는 배천땅을 떠나 연안에 있는 《선만 회사(鮮滿 會社)》 땅을 얻어 붙였으나 도지가 여느 지주들보다 일 할이나 더 비싼 거기에서도 역시 살'길은 막연하였다.

《형님! 이젠 죽어도 살아도 고향에 갑시다. 아버지도 그것을 얼마나 원했수.》

동생의 목 메인 소리에 형도 눈물을 지었다. 《옳다. 그렇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여기 고향땅으로 되돌아 오게 된 것이다.

그 후 두 형제는 장 대식의 땅을 붙였는데 그 놈은 제 애비 찜쪄 먹게 교활하였다. 그들이 고향에 몰아 온 이듬해부터 그 놈은 논 한 마지기에서 소작료 닷 말씩을 더 올렸다. 그것만으로도 100여 석의 벼가 더 들어 온다고 무릎을 쳤다. 허나 그 반면에 농민들은 련'일 굶어 쓸어졌다. 혹심한 봉건적 착취에 가미해진 식민지적 착취로 더욱 나빠진 것이 일제 통치 시기 우리 농민들의 처지였었다. 하여 왜놈 세상에서 형태는 허리'병을 얻어 만났고 그의 아들 덕기는 돈이 없는 탓으로 눈'병을 고치지 못 하여 종당 병신이 된 것 뿐 그들 일가에 남은 것이란 역시 아무 것도 없었다.

× ×

은행나무는 분노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멀리에서 미군 군용차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달려 들었다.

차에는 검정 안경을 낀 미군놈들과 순경놈들이 타고 있었다. 그 순경놈이나 면장놈들은 모두 일제 때의 이름 난 친일 주구들이였다. 일제 대신에 새로운 상전, 미제를 모신 이 졸개들은 거개가 왜놈 제복 대신에 미군 잠바를 갈아 입었다.

장 진사네 집에서 세루양복을 입은 장 대식이가 나와 허리를 굽히며 미군을 영접하였다.

차 우의 미군 장교는 고개를 끄떡하고 답례하더니 곤봉을 들어 마을 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이 마을 빈농들이 사는 따닥따닥한 오막살이들로 미군놈들과 순경들이 탄 트럭들이 떠받을 듯이 드리닥쳤다. 놈들은 개 떼처럼 차에서 우루루 쏟아져 내려 집집의 광들을 들추기 시작하였다.

미군놈들은 《꽁출, 꽁출》하고 미친듯이 웨쳐 대며 농민들의 쌀을 빼앗아서는 힝힝 트럭 우에 올려뜨렸다.

장 형태네 집에도 놈들이 쓸어 왔다. 놈들은 쌀독 속에 있는 저녁 끼니'감마저 훔치여 갔다.

《그것마저 가져 가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

형태는 이렇게 웨치며 대들었다. 그러자 와살스레 생긴 미군 병사놈이 형태의 가슴에 총을 드리대였다.

《까뗌! 총살이다!》

심지어 놈들은 가마니에 넣어 둔 메'주덩이마저 빼앗아 갔다. 모자라는 공출 수량을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놈들은 닥치는 대로 차에 걷어 싣고는 또다시 먼지를 뽀얗게 일쿠며 마을 저편으로 살아져 버렸다. 이것이 소위 《해방된》한 우물 마을에 미군놈들이 안긴 첫 《선물》이였다.

놈들은 쩍하면 사람들을 쏴 죽이고 깔아 죽였다. 흉흉한 소식이 하루에도 들려 오지 않는 날이란 없었다.

놈들은 일이 한참 바쁜 농번기에도 마을 사람들을 쩍하면 군사 시설 공사에 내몰았다. 38선이 가까운 이 마을에는 그런 동원이 그칠 날이 없었다.

삭풍이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 날, 장 원태 로인은 역시 놈들의 방어 시설 공사에 끌리여 갔다. 놈들은 매 사람에게 삽, 곡괭이, 눈 칠 넉가래 등을 준비시켰다.

놈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일을 시켰다. 땅은 어찌나 굳은지 곡괭이가 공처럼 튕겨 오르군 하였다.

한창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장교놈이 나타났다. 그는 넉가래 든 천 갑석이란 청년을 보더니 꽥꽥 소리 질렀다.

《어째 넉가래를 가져 왔느냐? 그 걸루 땅을 파?》

《눈을 치겠다고 넉가래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요.》

《뭣이 임마, 무슨 대답질이냐?》

놈은 악악 소리 지르며 매질하였다. 땅에 쓸어진 갑석의 입에서 선지피가 콸콸 나오더니 끝내 작업 현장에서 그는 삼십 청춘에 절명되고 말았다.

이렇게 빼앗기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는 게 바로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현실이였다.

× ×

연안땅에 광휘로운 태양이 떴다.

그 옛날 량반 지주들의 풍월 소리 높았고 왜놈들의 《구사쯔요이도꼬》와 미군 놈들의 자즈곡이 울리던 곳에 오늘은 이 나라 젊은이들의 행복의 노래 소리 높이 울려 퍼진다.

오뉴월 왕가물에 거북등처럼 터지던 논판에 그물처럼 수로가 뻗어 생명수 철철 넘치고 일망 무제의 연백벌에 황금 파도 출렁거린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이 흐른다. 은행나무도 기쁨에 겨워 춤을 춘다.

원태와 형태 일가의 생활도 전변되였다. 지난 해에만 하여도 그들은 50여 섬의 벼를 분배 받았다. 그들의 아들들인 덕기와 은기는 지금 협동 농장의 작업반장들이고 작은 아들들은 모두 중학교에 다닌다. 대대로 내려 오면서 머슴을 살아 온 그들 집에 과연 어느 때 글 한자 읽어 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 집은 오늘까지 네 제도를 살아 오지만 리조 때나 왜정 때나 미군놈들이 통치하던 때나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란 굶주림과 빈궁 밖에 없었소. 우리 공화국에서만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었소다.》

로인의 이 소박한 말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 제도 하에서 사는 절절한 기쁨이 어리여 있다.

유구한 력사의 증견자인 은행나무여! 이 땅에서 본 그 모든 것을 먼 후대에까지 길이 전하라! 그리고 푸른 하늘에 풍만한 아지를 마음껏 펼치고 날로 륭성하는 조국과 더불어 억천 만년 높이 솟아 있으라.

본사 기자 한 희 만
김 영 길

민청원들은 전진한다



사랑의 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러나 나는 집단의 사랑보다 더한 것을 모른다. 내가 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오솔'길에서 헤맬 때 큰 길로 이끌어 주는 나의 작업반, 나에게 있어 집단은 어머니이며 사랑의 샘이다.》

이것은 함흥 기계 제작소 주 봉엽 청년 천리마 작업반의 김 동무가 자기 일기에 쓴 한 구절이다.

청년 천리마 작업반의 생활은 도가니와 같이 들끓고 있었다. 그런데 작업반에 자그마한 근심'거리 하나가 생겼다.

지난 봄 초등 학원을 갓 졸업하고 작업반에 온 김 동무는 웬일인지 처음부터 직장에 마음을 부치지 못했다. 걸핏하면 작업장을 떠나거나 며칠씩 누워 있군 하는 그는 어느덧 반원들 속에 근심을 끼치게 되였다.

민청 단체는 김 동무를 공장 민청 위원이며 조립공인 김 충인 동무가 담당하여 교양하도록 하였다.

김 동무는 타일러도 그만, 꾸지람을 해도 그만, 이렇다 하게 달라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전쟁 때 일가 친척을 잃었던 한 로동자가 10여 년 만에 형을 만났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김 동무는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어디로 가 버리고 말았다.

그 날 밤 합숙으로 찾아 간 충인 동무는 가지고 간 책과 음식 꾸러미를 그의 머리맡에 놓으며

《김 동무, 몸 좀 어때?》하고 물었다.

《…》

김 동무는 덤덤히 앉아 있었다. 그러던 그의 눈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충인 동무, 나에게도 친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폭격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잃고 말았지요!》

김 동무는 비로소 자기 심중의 말을 하였다.

(김 동무가 왜 고독을 느끼는가. 그는 학원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공장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첫 걸음을 내 드디였다. 그러니 마음을 잘 안착하게 하고 집단에 애착을 가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를 안착시키고 그의 부모 형제를 찾아 보자!)

그날부터 충인 동무와 작업반 핵심들은 김 동무의 일가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충인 동무는 밤마다 수십통의 편지를 썼고 알아 볼만한 곳은 모조리 알아 보았다. 달을 두고 작업이 끝나면 지친 다리를 끌며 안타까이 돌아 다니는 한 혁명 동지와 따뜻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아직 김 동무는 모르고 있었다.

집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동무 일가의 종적은 막연하였다. 충인 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김 동무가 있던 초등 학원, 그리고 현지 주민들에게서 충인 동무가 알아 낸 김 동무의 집 사정은 너무나도 치가 떨리는 사실이였다.

…1951년 초여름, 강원도 어느 고개'마루에서는 전투 지역에서 소개하는 피난민 한 떼가 다리 쉼을 하고 있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과 보'짐 때문에 북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걸음은 더디였다.

이 때였다. 바다 쪽에서 도둑고양이 모양 기여 든 미제의 공중 비적이 이 평화적인 피난민 대렬에 달려 들었다. 귀청을 째는 기총 소리, 폭격 소리, 고개'마루는 화염과 죽음 속에 싸이고 말았다. 그 화염 속에는 겨우 여섯 살 난 김 동무와 그의 부모와 그보다 세 살 우인 형이 있었다. 뒤늦게 이것을 안 인민 군대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 왔다.

아직도 화염이 타번지는 속에서 울고 있던 어린 김 동무 하나만이 구원되였다.

(그런즉 그의 일가는 분명히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김 동무는 영원히 외로운 사람으로, 그것으로 하여 뒤떨어진 동무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는 굳세게 자라야 한다. 그는 외롭지 않다. 내가 그의 친형이 되여 주지… 그리고 우리 집단이) 김 동무에 대한 작업반원들의 정성은 날이 갈수록 지극하였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이 끝났을 때다.

《내 얘기 한 마디 하지!》

김 영보 아바이는 젊은이들을 돌아 보며 말을 꺼냈다.

《…한 35 년 전이였지. 그 때<와다나베 철공소>였던 이 공장은 말 그 대로 세상에 둘도 없는 생지옥이였었네. 나는 그 때 학교는 커녕 소년공으로 손을 호호 불면서 일을 강요 당했네. 허나 그 뿐인가. 우리는 감독놈들의 발 씻는 물까지 길어다 바쳐야 했네.

어느 날 대야에 물을 들고 감독놈의 방에 들어 갔던 나는 더운 물벼락을 맞고 쫓겨 나왔네. 언제나 물이 차다고 으릉대던 놈이 그 날은 물이 뜨겁다고 생트집을 잡는 것이였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 때 노예나 다름 없었지. 외로운 나는 누구에게 이 설음을 하소할 데도 없었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우리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 혁명 동지의 미래를 위해서, 전 작업반이 발 벗고 나서서 서로 돕고 이끌어 주지 않는가. 충인 동무만 해도 그렇지. 누구를 위해서 수백통의 편지를 썼고, 수백리'길을 걸었겠는가. 이것은 김 동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집단이 주는 사랑이네. 어디 부모나 형제인들 그보다 살뜰히 돌봐 주겠나.》

모두가 잠잠히 앉았다.

《아바이!》

김 동무는 더 말을 잇지 못 하였다.

그날 밤 김 동무는 생각했다. 작업반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합숙을 늘 찾아와 주던 작업반장, 인자한 아바이, 빨래'감을 몰래 가져 가는 아주머니들…

이 살뜰한 혁명 동지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근심을 주었는가, 뚝뚝하나 무한히 웅심 깊고 뜨거운 철공 로동자들의 사랑을 비로소 목이 후덥게 느끼였다.

그 후에도 작업반원들은 더욱 더 친형제와 같이 김 동무를 돌봐 주었다.

김 동무의 생활은 눈에 띄우게 달라졌다. 사전을 방불케 하는 두터운 그의 회상기 학습장을 펼쳐 본다면 그가 자신의 수양과 동지들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뒤떨어졌던 최 복희 동무를 솔선 담당하여 로동과 학습, 생활에 이르기까지 도와 주는가 하면 《모내기 15 일 전투》에 나가서도 청년 돌격대의 앞장에 나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들었다. 그는 언제나 작업반 앞에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부모의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해 내군 했다. 그는 집단의 사랑 속에서 불과 반년도 못 되는 기간에 제서공 6 급 자격을 가지게 되였다.

여기서 청춘이 꽃핀다

지난 6월에 들어서 공장은 채목기 생산 과제를 받았다.

채목기는 공장이 종래 만들던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힘든 것이였다. 그 중에서도 1 번, 2 번 시린다의 포금 판 씌우기 작업이 더욱 그러하였다.

2 메터 길이나 되는 시린다 원통 안에 2 메터 길이나 되는 종이'장처럼 엷은 원통형 포금판을 100 분의 1 미리의 오차도 없이 들이 맞추어야 하는 정밀하고도 거대한 작업이였다. 채목기 조립을 앞두고 여기에서 딱 걸리고 말았다.

시린다를 앞에 놓고 젊은이들은 기술 토론회를 가졌다.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한 창혁, 리 복진, 백 봉희, 오 태현, 창의 고안 명수 김 영보 아바이까지도…

그러나 신통한 방법이 나서지 않는다. 《기계 박사》로 불리우는 숙련공 김 영보 아바이까지도 머리를 저었다.

그렇다고 가만이 있을 수는 없었다. 시린다에 포금을 대고 몇번 때리자 그렇게 공 들여 가공한 포금은 묵사발 깨여지듯 깨여졌다. 실패다! 조심스럽게 내리친다. 그러나 이 번에는 찌그러진다. 또 실패다. 망서림, 그 다음에는 정지다. 그러면 영영 해 내지 못 하는가?

《하지도 못할 것을 시린다만은 다른 공장에 가서 해 봅시다.》

이렇게 물러 서려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나 청년들은 물러 서지 않았다.

《우리는 당이 준 임무를 꼭 해 내고야 말테오. 우리가 요만 것에 물러 선다면 당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보내겠는가?》

청년들은 벌써 며칠 밤 째 기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한 창혁 동무는 책 표지가 다스려져서 보풀이 일고 기름 때에 절은 회상기책을 꺼내여 《연길 폭탄》을 읽어 준다. 야간 학교에 갔던 리 복진 동무도 통근차가 끊어진 깊은 밤 20여 리 길을 집에도 안 들리고 곧추 작업장으로 나왔다. 강요하다 싶이 등을 밀어 보내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발'길은 열'걸음도 못 가서 되돌아 서고 만다.

마을에서는 며칠 째 이들의 기대 곁으로 식사를 날라왔다.

야간 고등 기술 학교 학생도, 통신 대학 학생도 노트를 들고 지혜를 모은다. 이러기 몇 날 몇 밤, 이 불보다 뜨거운 마음을 지닌 젊은 이들에 의해 압합 지구가 창안되였다. 그것을 프레나에 설치하여 드디여 1 번 시린다의 포금과 마추기 작업은 성공하였다.

1 번 시린다보다 2 번 시린다는 길이가 짧은 대신 직경은 배나 되였다. 그러나 2 번 시린다의 포금 작업을 위해서 청년들은 수동 프레스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큰 수동 프레스를 구하겠는가. 이 때도 청년들은 굴하지 않았다. 없는 것은 자체로 만들고 부족한 것은 얻어 내여 해결하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지닌 이들은 파철더미를 뒤져 그 날로 수동 프레스를 만들어 내였다.

긴장한 시선들이 수동 프레스의 시린다 포금 작업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 미리 한 미리 시린다 속으로 압착해 들어 가는 포금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당에 충직한 이 젊은 천리마 기수들의 뜨거운 심정이 느껴졌다.

《허, 우리 젊은이들이 다르군. 재간이 제갈공명도 못 당할세!》

김 영보 아바이는 젊은이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였다.

집채 같은 쇄목기는 조립이 끝나 숨'결을 내뿜었다.

《성공이다.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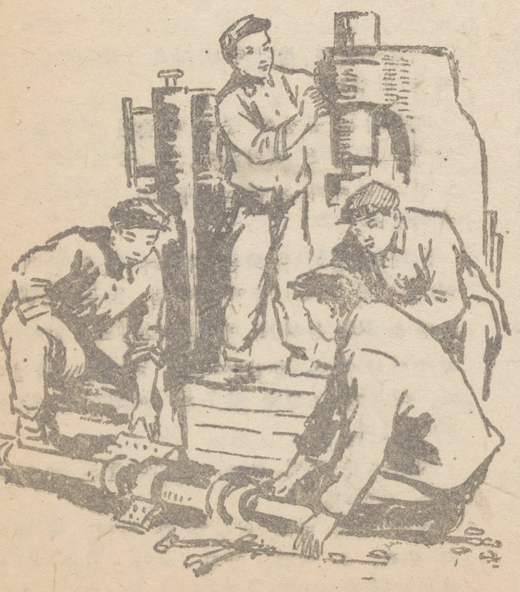
사람들은 감격에 목메여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그들의 높은 창조적 열의와 기술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누구나 일하며 배우자!》는 목표 밑에 지금 여기 젊은 천리마 기수들은 빠짐 없이 학교에 망라되여 있다. 이미 기수의 자격을 받은 백 봉히 동무를 비롯하여 작업반원 16 명이 모두 야간 고등 기술 학교와 공장 기술 학교에 다니며 배우고 있다. 모두가 로동자이며 탐구심 높은 학생이다. 그리하여 최근 1 년간의 작업반 평균 기능 급수는 0.9급 이상 높아졌다. 이들은 쇄목기를 생산하는 기간에만도 13 건의 새로운 기술 혁신안을 도입하였다.

실로 그들의 청춘은 여기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본사 기자



실 화

그가 남기고 간 노래



황해남도 룡연군 몽금포 마을에는 13 년 동안 전설처럼 전해 오는 노래 하나가 있다.

모래산에 붉게 핀
　　아름다운 해당화야
청춘의 이내 몸은
　　오늘날 쓰러져도
사랑하는 조국과 함께
　　해마다 곱게곱게 피여라!

지금까지 이 노래의 임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한 녀성 당원이 최후의 순간에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그 것 뿐이였다.

우리는 이 노래의 주인공을 찾는 중 드디여 그와 함께 치안대 창고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났으며 그의 장렬한 최후를 목격한 전 성춘 동무를 알게 되였다. 그에게서 우리는 안 화춘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 화춘—그러면 이 노래의 주인은 과연 어떤 녀성이였던가!

× ×

1950년 10월—안 화춘 동무는 당 세포에서 후퇴 명령을 받았다. 남성 당원들은 그를 먼저 떠나 가라고 자꾸 권고했으나 그는 끝내, 리 내의 현물세 창고며 여러 가지 뒤'거두매질을 다 하고서야 구월산으로 떠났다.

그러나 벌써 바다로 기여 든 적들과 재령으로 돌아 들어 오는 적들에 의하여 길이 막힌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만 화춘 동무는 원쑤놈들의 포위 속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다.

원쑤들은 화춘 동무를 붙잡자 《해안면 치고 으뜸 가는 빨갱이》를 잡았다고 법썩 끓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놈들은 그가 지난 날 얼마나 극성스레 나라 일에 발 벗고 나섰고 계급적 원쑤들과 얼마나 견결히 투쟁했으며 인민들의 신망이 높았는가를 잘 알기 때문이였다.

언제나 상냥한 웃음을 띤 얼굴에 억실억실한 두 눈, 오똑한 코'마루, 그는 아름다운 얼굴에 못지 않게 마음씨도 비단 같았다. 항상 쾌활하고 명랑한 성미에다 익살로써 사람들을 잘 웃기고 무엇보다 노래를 잘 불렀다.

때로는 자기로써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는데 빨간 수첩에다 늘 새 노래를 적어서 동무들에게 배워 주군 하였다.

비록 어느 한 때도 음악 공부나 시 짓는 공부를 해 본 일은 없으나 오직 벅찬 생활이 안겨 주는 서정과 랑만으로 하여 그는 그런 일을 곧 잘 하였다. 사람들은 소박한 말로 그를 《가수》라고 하였다.

그는 남달리 해당화를 사랑하였다. 언제나 몽금포의 모래산에 올라 그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고는

《아 사랑하는 나의 고향 몽금포
의 땅에 피고 지는 해당화처럼
이 몸도 언제나 그 품에 피고 지리라!》고

수첩을 펴 들고 시를 읊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향토를 사랑한 그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한 웅심 깊었다.

바로 후퇴의 얼마 전 미군놈 군함들이 몽금포 마을을 향하여 미친듯이 함포 사격을 퍼부을 때에도 그는 작렬하는 원쑤들의 포탄과 불'길 속을 누비며 마을의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수십 명이나 업어서 대피시켰다. 그는 참으로 당과 조국에 충직한 녀성 청년이였다.

이러한 화춘 동무를 잘 알고 있는 원쑤놈들인 것이다.

《치안 대장》실에 끌려 들어 간 화춘 동무

는 깜짝 놀랐다. 이게 웬 일인가! 분명 해방 직후에 월남 도주한 옛날《제당 회사》의 서기이며 몽금포《화신 상회》의 주인이였던 정 만회 놈이 가운데 앉아 있고 한 쪽에는 일본 군대를 상대하여 유곽을 경영하던 허 성예가 《국군》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또 한편에는 추방 당한 지주 리 창호가 앉아 히히덕거리고 있지 않는가!

이 극악한 인민의 원쑤들을 보는 순간 화춘 동무의 두 눈에서는 증오의 불꽃이 튀였다.

1920 년대 말 여기 몽금포에는 《우리가와》, 《가와 가미》 등 왜놈 선주들이 둥지를 틀고 솔밭에 덮인 《장산'벌》에는 《후지 가와》라는 왜놈이 《제당 회사》의 소위 《원료 농장》을 차려 놓았다.

처음 《후지가와》는 《난민 구제》의 간판으로 개간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소와 농기구, 비료 종자들을 무상으로 주고 한 농호에서 출발 만평을 일쿠면 첫 3 년 간은 일체 소작료와 지세를 없이 한다는 것이였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땅 없고 가난한 농민들은 남부 녀대하여 여기에 모여 들었다. 화춘 동무네 식솔도 이렇게 이 낯 선 고장에 찾아 왔었다.

개간지에는 삽시에 수백의 오두막이 서고 솔밭에는 개간의 도끼 소리가 쩡쩡 울렸다. 그들은 뼈 빠지게 일을 했다.

그러나 놈들이 《자비》로 베푼 한'되박의 《호미쌀》이 그들의 목구멍에 가시로 박힐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 해 가을, 한창 가을 걷이를 하는데 《후지 가와》놈과 바로 그의 마름아치 정 만회 놈이 나타났다. 놈들은 무상으로 빌려 준다던 소 한 마리 쓴 값에 메밀 30 말, 종자로 꾸어 준 호미쌀 한 말에 메밀 서 말, 거기에 그 수송비까지 붙인 계산서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당장 《농장 사무실》로 실어 들이라는 것이였다.

《아니 첫 3 년 간은 무상이라더니…》

농민들은 이럴 수 없다고 항거해 나섰다. 그러자 놈들은 경관들까지 동원하여 농민들을 탄압하였다. 이 사건 때 화춘 동무의 아버지는 경찰에까지 끌려 가 매를 맞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왜놈의 앞잡이들이 게다짝을 벗어 던지고 오늘은 미국놈 잠바를 걸치고 또 이 땅에 나타났단 말이지! 안 된다! 놈들에게 우리의 귀중한 행복을 빼앗길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화춘이는 부드득 이가 갈렸다.

먼저 정 만회 놈이 개기름이 번지르한 상판대기를 돌리며

《여! 이거 반가운 손님이구만…그 새 더 예뻐졌는데…히히히…》하고 시부렁거린다. 그리고는 허 성예더러

《여보 중대장님, 화춘인 내 처분에 맡기구려, 예?》하고 화춘 동무에게 접어 드는 것이였다.

《자! 〈대한 민국 만세!〉 한 마디만 불러라. 그러면 너만은 용서할테다. 얼굴이 예쁜 값에 말이다. 응? 자 어서…》화춘 동무는 찰거머리처럼 달려 붙는 그 놈을 묵이운 몸으로 밀어 던지고는 불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쏘아 보았다.

《개나발 불지 말아. 나에게는 나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있다.

네놈들이 나를 죽여도 그 따위 만세를 부를 수는 없다.》

그러자 중대장놈이 달려 들어 《뭣이?》하고 화춘 동무의 뺨을 후려갈겼다. 화춘 동무는 그 놈의 밉살스런 면상에 침을 뱉았다.

그 날부터 놈들은 야수 같은 고문을 드리댔다. 열 손'가락에 못을 박았고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심지를 가져다 댔다.

《그래, 아직 로동당을 믿겠느냐?》

《그렇다! 믿는다. 로동당은 나의 심장이다.》

《아직도 이 년이…》

그 다음은 또 몰매를 안겼다. 허나 그의 입에서는 신음 소리 한 마디 새지 않았다.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운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문이 끝나고 감방에 돌아 갈 때는 늘 피 자국을 말끔히 씻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군 하였다. 동무들에게 티끌 만큼이라도 걱정시킬가 봐 저어해서였다.

그의 나이는 스물 넷, 그 중 어리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한 없이 높고 깨끗한 정신에 감동되였으며 그를 믿고 따랐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그는 웃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을 노상 즐겁게 하여 주었다.

싸락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어느날 그는 다시 고문실로 끌리여 갔다.

《인젠 좀 사상이 똑똑히 물었을 테지.》

정가놈이 호통을 쳤다.

《그렇다. 똑똑히 들었다. 이 땅에서 미국놈들과 네따위 개새끼들은 씨도 없이 처죽여야 한다는 것을!》

《뭐야 이 년이.》

흉악한 그 놈은 길길이 뛰면서 화춘 동무를 커다란 몽둥이로 사정 없이 내리쳤다. 화춘 동무는 피를 토하고 쓸어졌다. 그러자 승냥이들은 그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카바이트 덩어리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것이 부글부글 끓을 때 불을 켜 댔다.

《확》하고 터지는 불! 세상에 이런 악착한 만행이 또 어디 있으랴! 오직 미국 승냥이들과 그 앞잡이 놈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화춘 동무는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지 못 했다.

몸이 어느 정도 성해진 어느 날 화춘 동무는 성춘 동무의 손을 끌며 쇠 살창께로 갔다.

손'바닥만한 창! 거기서는 몽금포의 바다와 모래산이 한 눈에 안겨 왔다. 방싯하게 열린 수평선의 구름'장 밑으로 탁조가 비껴 금산은 불타는 것처럼 붉게 물 들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화춘 동무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춘 동무! 지금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전쟁을 승리하면 저기 모래산 언덕에다 아이들의 소년 휴양소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끼리 바위 앞에는 뽀트장을 만들구…난 그 때 휴양소 마당에 해당화 산을 만들어 놓을래요. 아이들이 늘 붉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도록 말이예요.…》

성춘 동무는 화춘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에 휩싸여 몇 번이나 그의 손을 꽉 쥐여 주었다.

이윽고 화춘 동무는 창밖을 내다 보면서 낮으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가 손수 지어 부른 해당화의 노래였었다.

모래산에 붉게 핀
　　아름다운 해당화야
청춘의 이내 몸은
　　오늘날 쓰러져도
사랑하는 조국과 함께
　　해마다 곱게곱게 피여라!

………

그를 둘러 싼 사람들은 소리 없이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을 삼키였다.

끝내 원쑤들은 불로도 물로도 굽힐 수 없는 자랑찬 조선의 딸 화춘 동무를 총살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형장에 끌려 나가면서 그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동무들! 인민 군대는 꼭 돌아 옵니다. 김 일성 장군님은 적후의 우리들을 얼마나 근심 하시겠습니까! 그 이는 머지 않아 이 원쑤 놈들을 때려 부시고 여러 분에게 해방을 안겨 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매여 달리는 성춘 동무며 다른 동무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조선 로동당원답게 끝까지 싸워 이겨 원쑤를 갚아 주세요.》

그리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쓰다듬어 올리고 흰 적삼과 검정 치마를 바로 잡아 입은 다음 다리 하나 절지 않고 놈들을 맞받아 걸어 나갔다. 문간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 보며 방그레 웃음을 띠였다. 둥글고 환한 얼굴—그것은 진정 만발하게 핀 한 송이의 붉은 해당화였다.

총살장인 모래산은 감방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최후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모래산 우에 우뚝 선 화춘 동무! 그의 모습은 아름답고 숭엄해 보였다. 그의 맞은 켠엔 미군 승냥이들과 치안대놈들이 줄느런히 마주 서 있었다.

이윽고 키꺽다리 미군 장교놈이 무엇이라고 꽥 소리 지르자 놈들은 일제히 총을 들었다. 원쑤들의 검은 총구 앞에서 전뜻이 머리를 추겨 든 안 화춘 동무, 그의 눈'길은 눈 덮인 산야를 더듬고 있었다.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벌을 더듬음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조국의 륭성을 마음으로 바라는 것인가!

원쑤들은 그의 태연자약한 모습에 전률하였다. 미군 장교는 발악적으로 손을 들어 사격을 명령하였다.

《조선 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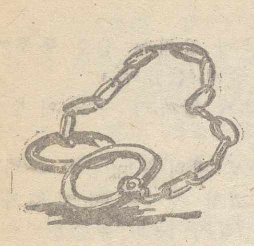
그의 맑고 쨍쨍한 목소리는 멀리 몽금포의 바다로 메아리쳐 갔다. 그것을 보는 성춘 동무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엔 놈들을 천백 배로 복수하리라는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허나 사람들이여! 그는 영영 우리 대렬에서 떠난 것이 아니다.

여기 장산곶 한가녁 몽금의 아름다운 바다'가에 붉게 만발한 해당화! 그의 넋은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언제나 우리의 가슴마다에 저렇듯이 붉게 피여 있으리라!

김 봉, 박 재수, 송 형근

제국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2)

최 승 섭

교활한 방법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의 제국주의와 그 두목인 미제는 대외적으로만 침략과 략탈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에서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기 위해 계속 전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은 이 전쟁 정책과 그들의 착취를 반대하여 계속 일어 나고 있다. 그리 하여 그들은 로동 계급을 탄압하는 동시에 교활한 방법으로 속여 가면서 착취하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로동자들에게 소위 《주권》(주주)을 사면 공장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의 주인이 된다고 속여 가면서 그들의 보잘 것 없는 로임의 일부분까지도 호주머니에서 털어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의 교활한 착취에 대하여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한 주일에 1백 딸라의 수입이 있는 로동자들만이 주권을 살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그 주권을 사려면 5년 동안이 걸린다. 이 기간에 매주 임금의 10 퍼센트를 떼 내여야 한다.

여기에는 헨리 포드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은 적게 들이고 로동자들의 푼전을 털어 공장을 경영하려는 음흉한 속심이 숨어 있다. 이 것이야 말로 벼룩의 간도 내먹으려는 격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2~3 년이 멀다 하고 일어 나는 경제 공황으로 공장 문을 닫고 로동자들을 내쫓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이 5 년 동안 계속하여 한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다.

그런 즉 독점 자본가는 로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 낸 본전마저 빼앗아 먹으려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다. 이 교활한 방법은 로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려는데 있다. 계산에 의하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 한 사람이 1 년 동안에 얻는 소위 《리익》이란 약 40 딸라 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로동자가 헨리 포드 자본가에게 벌어 주는 리윤은 적게 쳐서 6천 딸라에 달한다.

바로 이렇듯 헨리 포드 자본가는 주권을 산 로동자들에게 40 딸라의 미끼로 6천 딸라의 리윤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독점 자본가들은 교묘하고 악랄하게 착취하고 있다.

물론 독점 자본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로동자들을 속여 착취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국내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막아 보려는 데도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는 것만으로써는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게 되자 《주권》이니, 《리익》이니 하는 따위로 로동 계급을 튼튼히 얽어 매려고 한다.

《미국 강철 회사》에서 보면 로동자들이 파업하거나 태공할 때에는 그들을 공장으로부터 내쫓는데 그런 경우에는 로동자들의 《주권》을 무효로 하며 리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독점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의 반항을 손 쉽게 억누르고 마음 대로 부린다.

또한 그들은 로동자들에게 《주권》만 사면 누구나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주권》을 산 일부 로동자들에게는 이제부터 《공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껄인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점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착취를 소위 《주권》으로 교활하게 음폐하고 있다. 동시에 주권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억제하고 그의 혁명성을 마비시킨다.

제국주의자들이 참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을 념려한다면 로동자들에게 주권을 팔 것아 아니라 우선 실업자를 없애며 누구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미국에는 5백만을 헤아리는 실업자들이 있다. 그들은 죽지 못해 근근히 살아 가는 형편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케네디의 동생인 법무 장관까지도 숨길 수가 없어 미국 주민의 매 6 명 중 1 명은 거지 신세라고 인정하게 되였다.

미국의 거리에서 굶주린 실업자 대군이 창자를 그러안고 허덕일 때 독점 자본가들은 더 많은 리윤을 얻어 배를 불리웠다. 지난 20 년 동안에 록펠러 자본가의 순 리윤은 3.5 배로, 모르간 자본가의 재산은 2 배로 늘어 났다. 더우기 듀퐁 자본가는 8 배로, 멜론 자본가는 거의 10 배로 각각 자기들의 재산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각종 연회들을 차려 먹으며 심지어는 《개 생일 잔치》, 《원숭이 결혼식》 등 별의별 놀음들을 꾸미여 수천 수만 딸라의 돈을 탕진하고 있다.

그런 즉 오늘의 미 제국주의는 국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큰 착취자이다. 그리고 그 착취의 방법은 더 교활하다.

어디서 나오는가?

우에서 본 것을 간단히 결론 지으면 제국주의 본성은 침략, 략탈, 착취이며 그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 본성을 볼 때 도대체 제국주의가 왜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며 근로자들의 피땀을 빨아 먹는가? 또한 그의 본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국주의 본성은 그 나라 정부나 그 지도자의 정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들어 앉으면 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그 본성은 지도자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사회 제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와 같은 한 뿌리에서 돋아 난 두 단계로서 그는 자본주의보다 더 부자에게 《천국》이요, 빈자에게 《지옥》이다.

그러면 제국주의 사회가 어떻게 되여 사람의 피와 주검을 즐기는가?

그것은 오직 많은 《리윤》 즉 많은 돈을 위한 데 있다.

자본가들은 많은 리윤만 있다면 덫틀에도 달려 드는 짐승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말하였다.

《10 퍼센트의 리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20 퍼센트의 리윤이라면 자본은 활기를 띠

며, 50 퍼센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담해지며, 100 퍼센트이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 퍼센트이라면 자본에게는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만 생산도 하며 지어 협잡은 물론 살인 강도도 서슴지 않는다.

왜냐 하면 돈만 있으면 벼슬 자리도 살 수 있고 호의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가 대통령 자리를 얻기 위한 선거 운동비만 하여도 미국에서 기능 로동자가 50여 년 동안 일하여 벌어야 할 엄청난 돈을 들이였다.

또한 미국의 듀퐁 자본가는 24 개의 별장과 큰 주택이 있다. 이것은 실로 미국 국내의 전체 학교 교사 설비의 10 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 지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소위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는 18 세 되는 자기 딸을 사교계에 내세우기 위한 연회에 무려 22만 딸라를 마구 썼다. 그리고 록펠러 자본가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데 50만 딸라를 들이였다.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생활이다.

그런 즉 이 놈들은 사람도, 명예도, 지어 량심도 없이 오직 《돈》 밖에 모른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피에 굶주려 날뛰는 승냥이처럼 돈에 미쳐 날뛰게 된다.

그러면 돈'벌이를 위해 자본가들이 어떻게 날뛰는가?

우리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와 다른 점을 잘 알고 있다. 즉 제국주의에 와서는 몇 개 안 되는 큰 자본가들이 끼리끼리 모여 여러 가지 동맹을 뭇는다.

이것을 독점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자본가들은 많은 생산과 상품 시장들을 독차지 하게 된다. 그리 하여 그들은 더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독점 자본가들은 그들끼리도 서로 다른 자의 돈'벌이까지 빼앗으려고 물고 뜯고 하는 개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개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돈 많고 힘센 큰 독점 자본가는 그렇지 못한 자본가를 망둥이 제 새끼 잡아 먹듯 잡아 먹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몇 개의 큰 독점 자본가들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틀어 쥐고 마음 대로 좌우하게 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8 개의 큰 독점 자본가들이 미국의 전 경제와 나라의 주권을 틀어 쥐였다.

이 때부터 독점 자본가들은 물건 값을 마음 대로 높여 팔므로써 많은 돈을 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때문에 그들은 오직 리윤이 있는 물건만을 계속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만들어 낸 물건은 팔 곳이 없게 된다. 왜냐 하면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에 의하여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많은 근로자들은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많은 물건이 쌓이고 쌓여 썩어 나며 팔리지 않아 리윤이 없게 되므로 공장 문을 닫고 로동자들을 내쫓는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미국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에서는 생산은 많으나 근로자들은 바로 그들이 많이 생산하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경제 공황인데 이것은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 더 자주, 더 크게 일어 난다.

경제 공황이 일어 날 때마다 일'자리를 빼앗긴 로동자들은 부득불 먹고 살기 위하여 독점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게 된다.

이 때에 와서 독점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을 파쑈화하고 로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면서 그들을 마음 대로 착취하기에 광분한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르면 독점 자본가들이 국내에서 더 돈'벌이 할 곳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독점 자본가들은 더욱더 돈'벌이에 기를 쓰면서 고양이 기름 종지 노리듯 돈'벌이할 곳을 찾는다.

그들이 찾은 것은 많은 원료, 마음 대로 팔 수 있는 상품 시장, 값 눅은 로동력 등이다.

그들은 이런 곳을 발전하지 못한 다른 약한 나라에서 찾아 낸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승냥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약한 짐승을 찾듯 세계의 곳곳마다 찾아 떠나게 된다.

약한 나라에 찾아 간 그들은 그 나라에게 《원조》니, 《방조》니, 지어 《하느님》까지 들어 가면서 속이며 또는 무력으로 위협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하여 식민지로 만든다.

독점 자본가들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서 풍부한 자원을 빼앗으며 식민지 나라의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자기 나라에서 팔 수 없던 상품을 팔아 먹는다. 바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것도 이런 것이였다.

그런데 한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만이 그런 식민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도 구하게 된다.

그리 하여 그 전에는 한 나라 내에서 자본가들끼리 물고 뜯고 하였다면 이 때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개 싸움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힘이 약한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은 망하고, 힘이 센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은 이기게 된다.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힘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모여 여러 동맹을 맺고 세계 시장 즉 약한 나라들을 제 멋대로 나누어 가진다.

이와 같이 나누어 가진 그들은 식민지에서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은 언제 어느 힘 센 큰 나라의 독점 자본가에게 식민지를 빼앗기게 될지 알 수 없으며, 또 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언제 일어 나 저희들을 쳐 없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한 나라의 국가 권력까지 빼앗아 잡고 거기에 자기 군대를 가져다 두며 많은 군사 기지를 설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독점 자본가들은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들의 욕심은 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많은 원료와 더 넓은 시장이 요구된다.

이 시기에 와서 이것을 구하자면 다른 나라가 이미 차지한 식민지를 빼앗아 내야 한다. 또한 좀 약한 나라를 침탈해야 한다. 여기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독점 자본가들이나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를 군사화하고 무기만 만든다.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서는 싸움에 내몰 대포 밥을 긁어 모으면서 군사 기지를 더 설치하게 된다.

제국주의 나라 독점 자본가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이른 바 오늘의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제패에 대한 허황한 꿈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오직 돈'벌이(리윤 추구)만을 위해 승냥이처럼 날뛰게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제도를 영영 쳐 없애기 전에는 그 본성이 그 대로 있게 된다. 때문에 어느 《선량한 사람》이 지도자로 들어 앉으면 그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맹랑한 소리다. 오직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기 전에는 그의 본성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는 지구 상에서 쓸어 버려야만 그들의 략탈과 침략, 착취가 없어지며 세계 인민들의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 없어진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고 송 일

최근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마치 《평화의 벗》인듯이 가장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 독점 재벌의 대변자이며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괴수이며 세계의 헌병감인 케네디가 요즈음 부쩍 《평화》에 대하여 떠든다 해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로 놈들의 대외 침략의 력사가 보여 주듯이 미제는 때로는 《군사 전략》을 내세우는가 하면 때로는 《평화》의 가면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활한 술책으로 《세계 제패》를 획책해 왔다.

케네디 자신도 1960년 1월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은 이튿날부터 자기를 악명 높은 《아이젠하우워나 덜레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이 실현하지 못한 《세계 제패》의 야망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한 손에는 화살을, 다른 한 손에는 가람나무 가지를》라는 량면 전술을 자기들의 침략 정책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던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 지배 계층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놈들의 《평화 전략》이란 《군사 전략》의 보충물이며 그의 변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요즈음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한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 놓으면서 《평화 전략》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는 리유는 어디 있는가.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오늘 세계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력량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앙양되고 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제국주의의 내부 부패와 모순은 첨예화되고 그 쇠퇴와 몰락은 촉진되고 있다.

이처럼 궁지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인민 대중의 경각성을 마비시키고 반제 투쟁을 약화시킴으로써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흉악하고 교활한 술책으로써 《평화》의 가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케네디는 우선 사회주의 진영을 약화시켜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미 케네디는 1948년에 《공산 집단을 분렬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 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재작년에는 소위 《20 년 평화 계획》이라는 것을 제기하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여 보려는 흉악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 바 있다. 특히 최근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 소위 《평화》에 관한 장광설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내부 변화》를 운운하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의 복귀를 노리는 음흉한 기도를 드러내 놓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평화》의 가면 밑에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며 파괴하려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케네디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의견 상이를 리용하여 그 무슨 리득을 얻어 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평화 전략》을 벌려 놓고 있다.

바로 미제 침략자들이 최근 발광적인 반중국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미제의 《반중국》 소동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친선 단결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총체적으로 반제 평화 력량을 약화시켜 보려는 흉악하고 추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 현 시기 미제의 《평화 전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을 마비시키며 혁명 투쟁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오늘 케네디는 《평화》의 조건을 내걸고 로동 운동과 혁명 투쟁을 포기할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이 노리고 있는 다른 하나는 식민지 나라들과 신생 독립 국가들에 침투하여 그 나라들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시키며 그 나라들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는 것이다.

케네디는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 《원조》, 《평화군》,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진보를 위한 동맹》 등 허울 좋은 신 식민주의 도구를 발동시키고 있다.

바로 콩고의 경우가 똑똑히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평화》의 간판 밑에 허울 좋은 신 식민주의 도구들을 리용하면서 앞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더욱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을 자기의 신 식민주의의 예속 하에 두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는 뻔뻔스럽게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제 력량과 민족 해방 운동 및 기타 혁명 투쟁을 지지하지 말 것을 공공연히 《평화》의 조건으로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는 《평화》와 《원조》의 가면 밑에 남조선과 남부 월남, 라오스에서 큐바와 콩고에서, 대만과 일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제멋대로 무력 침략과 간섭을 감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족 해방 운동과 모든 혁명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야》하며 이것이 《평화》를 위하여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파렴치한 침략 목적을 추구하는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세계 인민들 앞에 그 본성을 감출 수 없다.

오늘 미제는 도처에 900여 개의 침략적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 파견된 약 100만 명의 미군들이 《국제 헌병》으로써 갖은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로케트로 장비된 미국 원자 잠수함들이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로 싸다니고 있으며 나또, 쎈또, 세아또, 안쥬스 등 침략적 군사 쁠럭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고 있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1953년부터 1963년에 이르는 10 년간에 지출한 군사비는 무려 4천억 딸라에 달한다.

케네디가 백악관의 높은 연단에서 《평화》에 대하여 떠들고 있을 때 남부 월남과 라오스에서 피 비린내 나는 《특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적 마수가 뻗쳐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착취 당하고 학살 당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날이 갈수록 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다 악랄하고 간교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의 미사려구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미제의 허위적인 《평화》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미제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며 그들과 타협, 투항하는 것은 바로 미제가 쳐 놓은 투망에 걸리는 것이며 놈들의 침략 정책을 방조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야의 찌또를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케네디가 마치도 리성이 있고 《평화》를 원하는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며 로동 운동과 식민지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함으로써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미제의 침략 정책의 충실한 방조자이며 사환'군인 그 본성을 그 대로 드러내 놓는데 불과한 것이다.

오늘 제국주의 특히는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평화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할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력량을 단합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 하도록 수족을 얽어 매여야 한다.

우리는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극동과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높혀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평화》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 아무리 《평화》의 탈을 쓰고 발악하여도 력사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저들의 멸망의 운명은 결코 면치 못 할것이다.

싸우는 길 밖에 없다



얼마 전 남조선 출판물 《대한 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자그마한 기사가 실렸다.

《김 덕숙(19세) 고학으로 서울 서라벨 고등 학교 3년 다님. 서울서 세'방살이 하면서 유리 공장에서 일해 오다가 몸이 쇠약하다고 해고 당함 (7 세 때 모 사망 작년 9월 부 사망)

수일간 친구 집을 찾아 다니며 끼니를 이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작년 10월 13일 수도 의대 병원에 가서 피 380 그람을 팔아 400 원을 받아 가지고 찹쌀떡 장수… 그래도 도저히 살 수 없어 지난 1월 2일 자기가 입었던 잠바를 팔아 독약을 사서 음독…운운》

남조선 청년들의 암담한 처지를 말해 주는 김 덕숙의 생활고에 대한 진상을 아래에 소개한다.

10월 중순 어느 음산한 날이다. 서울 의대 병원 현관 앞 층계를 내려 오는 덕숙은 눈 앞이 아찔하여 한 손으로 란간을 쥔 채 발'걸음을 멈추고 섰다. 몸에는 홑것만을 걸치였으나 코'등과 등'줄기로 식은 땀이 쫙 흐르고 귀 안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다.

멀거니 서 있는 덕숙의 눈 앞에서는 창경원의 길다란 담'벽이 널을 뛰듯 이리 기울 저리 기울 하고 하늘과 층계가 빙글빙글 맴을 돈다. 눈을 감았다. 그러자 몸이 시'누런 천길 심연 속으로 잠긴다. 눈 앞에는 수천 수만의 불티가 하루살이 날아 돌듯 한다.

덕숙은 현기증을 이기려고 손을 이마로 가져 갔다. 그러자 이마에 산뜻한 감촉을 느낀 그는 눈을 떠 주먹 안에 든 것을 들여다 보았다.

돈! 덕숙은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분명 돈이였다. 백원짜리 재지전 넉 장이 끄기 끄기 접힌 채 피'기 없는 손'바닥 우에 놓여 있지 않는가!

《후—》 열 아홉 살 청년답지 않게 깊은 한숨을 내쉰 덕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누렇게 잎이 말라버린 정원 나무들 저쪽으로 뻗은 길이 보인다. 그리로는 미군 장교놈들과 괴뢰군 복을 입은 배뚱뚱이 놈들이 고급 승용차에 요사스런 계집들을 태우고 덕숙이를 비웃기나 하듯 휘파람이 일게 지나 간다. 덕숙은 속이 메스꺼워 침을 탁 배앝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 쪽으로는 고색 찬연한 담장으로 둘러 싸인 창경원이 바라 보인다. 그 담장을 보고 있노라니 저도 모르게 지난날이 생각 키운다.

…덕숙에게도 남들처럼 부모의 손을 잡고 저 담장 밑으로 걸던 그런 날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한 생에서 너무나도 잠간, 그리고 먼 지난날에 있은 일이다.

덕숙이 여섯 살 때 미국놈이 리 승만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3 일째 되는 날 놈들은 인민 군대의 반격을 받아 서울에서 풍지박산이 되여 쫓겨 갔다. 그 해 가을 놈들은 다시 이 거리에 기여 들어 왔다.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 갑자기 병이 나서 세상 모르고 앓다가 인민 군대를 따라 가지 못한 아버지는 두고두고 후회하더니 《국군》에 끌려 나가고 말았다.

그 이듬해였다. 어려운 전쟁 시기 아버지도 없이 오직 그에게 한 분 밖에 없는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었다. 그 때도 오늘처럼 음산한 날이였다. 살벌한 전시의 서울'바닥에서 병든 어머니는 소생될 길이 없었다. 얼굴이 해쓱한 어머니는 새파란 입술을 간신히 놀려 《아버지는 어찌되셨는지? 너만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나 잘 살아라…》 라고 하더니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그 후 허리에 타박상을 받은 아버지는 종신 골병이 들어 《국군》 살이에서 돌아 왔다.

그 때부터 두 부자는 파도에 밀리는 나무쪽처럼 험악한 그 세상에서 부대낄 대로 부대끼면서 살아 왔다.

철이 들면서 덕숙은 안하는 일이 없이 하였다. 구두 닦기, 양담배 장사, 신문 배달로 그는 자랐다. 그는 간신히 고학으로 서라벨 고등 학교를 3 년 다니고 겨우 어느 유리 공장에 일'자리를 하나 얻긴 했으나 영양 실조로 몸이 약해지자 회사에서는 그를 내쫓고 말았다. 그런데 엎친데 덮치기로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마저 지난 초가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조에 의지가지할 곳 없는 고아로 되고 말았다.

그 후 여기 저기 친구네 집으로 다니며 몇 끼를 얻어 먹었으나 내남 없이 죽물도 겨우 얻어 먹는 세월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 그 노릇을 하랴!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찾아 낸 길이 피를 파는 길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피와 바꾼 400원이 지금 손에 쥐여지게 된 것이다.…

며칠이 지난 뒤다. 종로 거리에는 젊은 찹쌀떡 장사 하나가 새로 나타났다. 덕숙이였다. 그는 피를 판 400원으로 떡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떡 목판을 둘러 멘 덕숙은 네온등이 눈부시게 비치는 번잡한 종로 거리를 걸어 가고 있었다. 덕숙은 등'불이 눈부신 이 거리와 자기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청계천'가 판자'집 동네는 얼마나 대조적인가고 생각했다. 배 부른 자들의 유흥이 무르녹는 이 거리,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와 주림을 못이겨 한숨 짓는 판자'집 동네.

(이것을 바라고 청년들이 그리도 열에 들떠 다녔는가?)

덕숙은 4.19 때를 생각했다. 바로 이 거리에서 청년 학생들이 미국제 땅크를 맞받아 나아갔다. 늙은 흉물 리 승만의 동상을 개 모가지 매듯 해서 끌고 다니던 그들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며 피흘려 싸운 자유와 생존의 권리는 어디에 갔단 말인가?

밀물처럼 밀려 다니는 제기 실업 청년들, 손에 깡통과 양담배곽을 든 숱한 소년들…그들은 이런 것을 위하여 피흘렸단 말인가?

모든 것은 《군사 정권》에 앉은 놈들 때문이다. 아니다. 그놈들 뒤에 앉아 고나풀을 당기고 있는 미국놈들이 남조선에 둥지 틀고 있기 때문이다.

덕숙은 생각할수록 밸이 불끈 불끈하였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밤 하늘은 찌프둥하게 흐려 음산하였다.

《찹쌀떡이요 찹쌀떡!》

덕숙은 온 몸이 노그라질 때까지 밤낮 돌아 다녀야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밥 값도 제대로 안 나왔다. 매일 하숙비 20원씩 물고 보니 꽂감 뽑아 먹듯 야금야금 밑천이 줄어 들어 나중에는 그나마 빈 손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가로수며 창경원의 수려하던 나무들도 앙상

한 가지만 드러나고 그 나무가지에서 까마귀들이 불품없이 울어대고 있다. 동지'날도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덕숙의 발'길은 달반 전에 비틀 걸음으로 내려오던 외대 병원 현관 층계를 또다시 밟고 있었다. 다른 길을 찾지 못했다. 당장 배 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남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날 돈 200원을 손에 쥔 덕숙은 간신히 하숙집에까지 올 수 있었다.

밑천도 모자라지만 그에게는 떡 장사할 힘이 더는 없었다. 이제 덕숙에게는 목숨과 같은 돈 200 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루 5원짜리 국수 한 그릇씩을 먹고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조금조금 돈이 줄어들 때마다 덕숙은 자기의 생명이 그만큼 줄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성한 사람도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 일'자리가 그에게 차례질 리 만무하다.

자리에 누운 덕숙은 생각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었고 또 그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덕숙은 아득바득 어린 몸으로 고학을 하였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나 마지막엔 일'자리를 떼우고 배 고프니 생명의 피를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자기만의 운명이 아니고 남조선 전체 청년들의 운명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피마저도 팔 길이 없다. 벌써 얼마 전부터 아침마다 신열이 오르고 밤새도록 기침이 나왔다. 그러니 이것을 안다면 병원에서는 피마저도 사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의지가 없는 자기를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있는가.

이 험악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덕숙은 자기가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 가던가 아니면 이 사회를 영원히 뒤엎던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다른 길을 걷자니 자기에게 이 사회를 뒤엎을 어떤 힘이 있는가? 그러니 차라리…

덕숙은 몸에 걸쳤던 낡은 잠바를 팔아 독약을 샀다. 떨리는 손으로 독약 그릇을 쥔 덕숙의 귀에는

《너만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지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세상에서도 내 이 꼴을 보신다면 얼마나 절통해 하실가! 그러나 살아서 좋은 세상을 못 볼 바엔 어머니 곁으로나마 가자!)

독약을 마신 덕숙은 배에 불이 일고 하늘이 온통 피'빛으로 보이였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로부터 얼마 간 지났다. 덕숙은 몽롱한 의식 속에 입으로 뜨뜻하고 들척지근한 것이 흘러 드는 것을 느꼈다. 목이 탔다.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온다. 그는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덕숙은 애써 눈을 뜨자 자기를 지켜 보는 근심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재파란 젊은이가 이게 무슨 약한 짓인가.》

얼굴이 거밋거밋한 로동자 차림의 40쯤 되여 보이는 사람이 군살 투성이의 손'바닥으로 덕숙의 이마를 짚으며 부드럽게 하는 말이였다.

그 때에야 덕숙은 자기가 독약을 마셨던 일이며 이들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느꼈다.

《자, 밀'가루 미음이야, 받아 마셔야 기운을 차리여》 눈물이 글썽한 한 어머니가 미음 숟가락을 덕숙의 입으로 가져 왔다.

덕숙은 구사일생으로 빈민굴 사람들에 의해 구원되였다. 덕숙이가 그 집에 있는 며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 와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가군 하였다.

《자! 가만히 보구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우리의 요구를 불일간 들이 댑시다.》

덕숙이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였다. 그들은 당장 무슨 일을 낼 것만 같았다.

《우리는 자네와 같이 부당해고 당한 동료들의 무조건 복직과 로동 조건 개선을 위해 래일<군사 정권> 당국, 그리고 회사 측과 한판해 보려네.》

그 동안 덕숙의 몸은 이곳 빈민굴 로동자들의 지극한 간호를 받아 어지간히 추셨다.

그러나 그보다도 튼튼해진 것은 덕숙의 마음이였다. 그는 자기에게 없다고 비관하던 그 힘—이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할 그 힘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이 소박하고 참된 사람들 속에서 도도히 구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였다.

《자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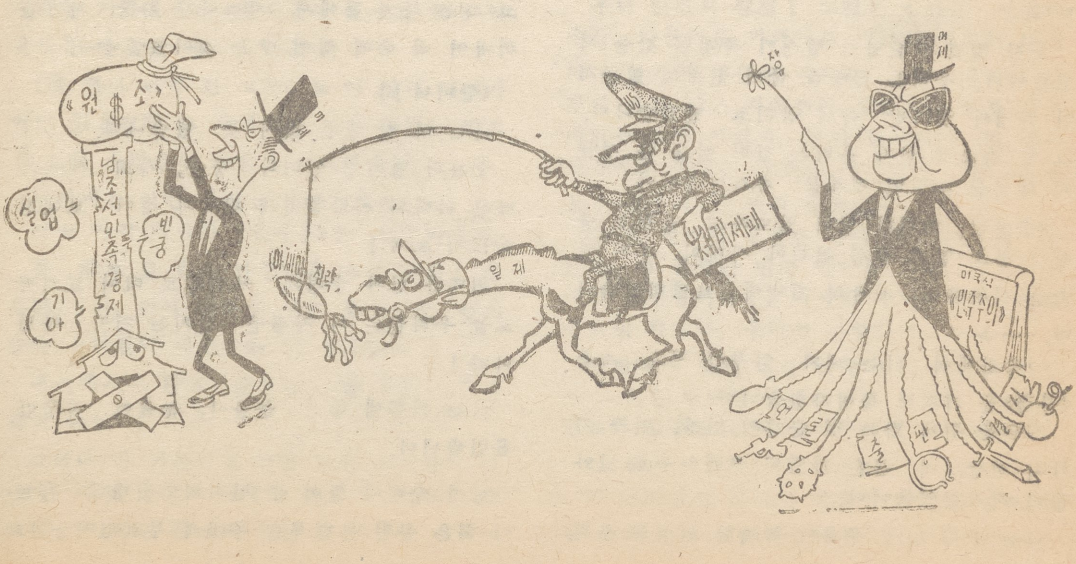
다음 날 덕숙이 있는 집 앞으로 로동자들이 모여 회사 쪽으로 밀려 갔다.

그 가운데는 어느 사이에 덕숙이도 뛰여 들었다.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나는 살아서 이들과 같이 싸울테다! 이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을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시던 그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나는 싸울 것이다.)

덕숙이는 다른 로동자들에게 뒤질세라 큼직큼직하게 발'걸음을 내짚었다.

본사 기자 한 현준





환희가 넘치는 시대에

공훈 배우 홍 정화



《조선의 예술은 어둠을 밝혀 주는 홰'불과도 같은 예술이다!》

헬싱키 사람들의 이 말에서 나는 자기의 행복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해방 전 철도 로동자의 딸이던 나는 오늘 공훈 배우로까지 되였습니다. 일제 시기 아버지는 24 년 간을 보선공으로, 기관차 화부로 등뼈가 휘도록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예는 겨울 날이나 찌는듯 무더운 날 재'무지를 뒤져 석탄을 줍는 어머니 곁에서 《엄마—엄마—》하고 배 고파 울던 내가 예술가가 되리라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방 후 당의 품'속에서 자란 나는 중학교, 무용 학교, 배우—이렇게 그 전 날 우리 부모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아무 장애 없이 걸어 오늘에로 왔던 것입니다. 나는 로동 계급의 의지로 자랐고 약동하는 천리마 시대의 기백으로 예술 창작에 몰두하였습니다.

우리 청년 예술단이 헬싱키 축전에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행장을 풀기 전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꽃다발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날 숙소에 들자 우리는 멀리 떠나 온 평양의 하늘을 그리며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수상님,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우리는 당신이 몸소 열어 주신 천리마 시대의 우리 예술을 시위하여 조국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축전에서 나는 내가 안무한 무용 소품 《북춤》을 가지고 출연하였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첫 순간의 긴장, 민족 기악의 선률, 내 몸은 가볍게 무대 우로 날아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 무용의 독특한 언어로 우리의 천리마 시대를 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생각뿐이였습니다.

나의 무용은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파파 늙은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며 무대 우로 올라 오셨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쓰러 안으며

《당신은 하늘과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내딸로 삼으며우… 아, 당신의 춤을 보는 5 분 동안이나마 나는 천리마의 나라에서 살아 봤으니 내 소원이 풀렸소, 이런 훌륭한 예술단을 보내 준 당신네 조국에, 김 일성 수상님께 이 분란의 늙은이가 보내는 인사를 전해 주구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품에서 자그마한 가죽 가방을 꺼내여 내 손에 쥐여 주는 것이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더 할 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언어와 풍속, 사회 제도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이 보여진 우리의 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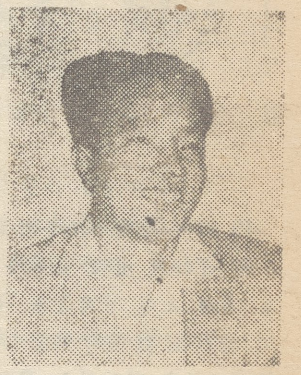
위대한 당과 수령의 아들딸로 태여 났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랑을 떨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기쁨에 넘친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당과 수령이 열어 준 환희의 시대에 사는 이 젊은 무희의 행복을 목메게 부르면서…

우리 인민의 감정을 담아

공훈 배우 한 시준



우리 청년 예술단이 음악의 도시 윈나에 갔을 때다.

나는 기악 콩클에 옥지 독주 곡목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내가 들고 나간 옥지에는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란 내 생활이 기록되여 있다.

…전쟁이 가렬하던 1952년 책보따리를 질머진 나는 음악 대학으로 가고 있었다.

전쟁과 음악! 이것은 내 자신도 얼른 리해되지 않는 것이였다. 그러나 당은 민족 문화의 개화 발전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나는 민족 음악을 전공하였다.

나는 대학에서 나오자 오래 전에 일제에 의해 파묻히고 만 우리 나라의 고전적 악기인 《지》라는 악기를 복구하여 그것을 옥돌로 만들 것을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그 환상적인 악기는 종래의 저'대나 지보다 더욱 맑고 아름다운 우리'시대의 소리가 울릴 것이였다.

석공도 아닌 나는 옥돌을 다듬기 수백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동무들의 방조로 끝내 이 옥지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이 땅의 정기가 어려 있을진대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치리라!)

나에게는 이런 자신심이 생기였다.…

나는 자작 작곡한 《선녀봉》을 연주하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조국 강산! 신선한 정기, 깎아 세운듯 솟은 봉우리들, 살기 좋아 선녀들이 내렸다는 그 선녀봉…

옥지에서는 맑고 투명한 구슬 같은 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러나 귀 기울이면 구슬 같은 소리만이 아니다. 때로 웅글고 장중한 소리가 나오고 또 그것을 이기는 맑고도 구슬 같은 강한 소리…

그것은 아름다운 이 땅을 침노한 적들을 때려 부신 이 나라 인민의 굳세고 강한 불굴의 의지의 소리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원쑤에 대한 증오!

나는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심장의 웨침을 옥지에 담아 부르고 불렀다.

옥지를 부는 나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를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 연주가 끝났는지 모른다.

박수 갈채와 환호! 심사원 석에서 한 심사원이 뛰여 올라 와 나를 와락 그러 안았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연주는 내 심장을 틀어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인민의 진실한 감정을 전할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기뻤다.

우리 인민의 감정! 그것은 참다운 생활과 투쟁, 아름다운 미래에로 지향할 절절한 념원이 아닌가! 때문에 언어와 풍습, 견해와 감정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이렇듯 격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어 침착해야 할 심사원까지도 콩클의 규칙을 어기면서 자기의 흥분을 감추지 못 하지 않는가!

《조선 악기의 선률은 나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참 훌륭한 민족 악기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 조선입니다!》 외국의 청년들은 우리를 부러워 하였다. 우리는 자랑한다.

만발하게 꽃핀 조선 민족 문화 예술의 화원 — 그것은 위대한 우리 당과 현명한 수령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선은 예술의 나라다!》

이 나라에서 자기의 예술적 기량을 닦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조선의 애국 청년

청년 반일 의병장

전 해 산

김 명기　　　권 남선

19 세기 후반기로부터 20 세기 초—이 때는 우리 나라의 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던 시기로 전체 조선 인민들은 나라의 독립과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본주의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차게 전개하였다.

전 해산(全海山)은 이러한 시기에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서 영웅적으로 싸운 청년 반일 의병장들 중의 한 사람이다.

전 해산은 전라남도 영산 출신으로서 그의 아버지 전 봉준은 일찌기 외래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악질적인 량반 관리들을 소탕하고 인민들을 구원하자!》, 《양키 침략자와 일본 침략자들을 구축 섬멸하자!》 등의 구호를 들고 전라도 지방에서 농민군을 지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1895년 4월 41세로 생애를 마친 갑오 농민 전쟁의 지도자였다. 그의 할아버지 전 창혁도 역시 일찌기 농사를 짓는 한편 서당을 열어 마을의 청년들을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1893년 고부 농민 폭동 때 농민군 지도자로서 악질적인 군수의 폭행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여 가혹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이러한 애국적인 가정 환경에서 태여난 전 해산은 어려서부터 열렬한 애국 사상과 외래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탔다.

당시 일본 침략자들은 매국적인 리 완용 등 역적들과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더욱 뻗치고 있었다. 일제 침략자들의 침략과 매국 배족을 일삼는 봉건 통치배들의 전횡으로 인하여 전라도 인민들은 시시 각각으로 생활에서 커다란 위협에 부닥쳤다. 농민들은 땅에서 쫓겨 났으며 친일 주구들의 죄행으로 나라는 더욱 망국의 처지에 빠져 들어 갔다. 이에 인민들의 울분과 의분은 절정에 달했다.

청년 전 해산은 이러한 망국의 위험 앞에서 《죽드라도 나라를 찾자!》라는 비상한 결의를 다지고 의병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반일 의병 투쟁은 전국적 규모에로 불'길처럼 퍼져 나갔다. 1909년 전라도 인민들은 전 봉준의 아들인 애국 청년 전 해산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때로부터 전 해산을 전라도 각지의 의병 부대를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전라도 해안 연선을 중심으로 간악한 원쑤들을 습격하였으며 원쑤들의 무장을 탈취



하여 자기들을 무장하였다.

한편 인민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힘썼다. 그러면서 의병 부대는 날로 세력을 확대하여 각 고을 악질 군수들을 비롯한 통치배들을 처단하며 그 기관들을 습격하여 나라를 팔아 먹으며 인민들을 여지 없이 착취하는 봉건 통치배들의 죄행을 인민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 규탄하였다.

그의 의병 부대는 전라도 지방에서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강화 발전되면서 과거 자기 아버지가 싸웠고 반일 의병장 최 익현이 활동하던 순창, 태인 정읍 등지를 걸쳐 광범한 지역에 투쟁을 확대하였다.

전 해산은 무장한 일제와 싸우는 조건 하에서 지구전과 유격전으로써 적들을 종국적으로 섬멸하려 하였으며 특히 각 지방 의병들의 조직적인 련계와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명성은 삼남 일대에서 날로 높아져 갔다.

그러나 청년 의병장 전 해산은 적들의 모략으로 체포되여 애석하게도 영산포에서 20 대의 청춘으로 사형 당하게 되였다.

그는 원쑤들 앞에서 끝까지 굴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불타는 애국 지성을 담은 시 《옥중에서 읊노라》에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읊었다.

《서생이 왜 군복을 떨쳐 입었던고,
그 뜻 상기 못 이루어 한숨을 짓노라
통분토다 조정의 간신 놈들 나라를 파는구나.
어찌 참으리오 왜적이 조국을 침범하거니
설음이 복받치니 한낮에 강물은 더디 내리고
목 메여 눈물 뿌리니 푸른 하늘에 비'발이 날리네.
영산포 고향을 이제 떠나 가노니
내 두견새 되여 피를 물고 돌아 가리라.》

—☆—

애국 청년

안 중 근



1905년 일본 침략자들은 리 완용을 비롯한 매국 역적들을 사촉하여 망국적인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 치욕적인 《을사 조약》을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애국적인 반일 의병 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여 갔다.

청년 안 중근은 바로 이런 시기에 의병 부대 참모장으로서 함경북도 일대에서 맹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09 년에는 일본 침략자의 괴수 이등 박문을 쏴 죽인 조선의 한 용감한 애국 청년이였다.

안 중근(安重根)은 1879년 5월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에서 태여났다. 그의 부친 안 태훈은 비교적 일찌기 개화한 우국지사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애국적인 사상 영향을 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했으며 의협심과 대담성, 자기 희생성 등이 강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조국과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17세 때부터 군사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안 중

군은 자기 집 재산을 모조리 팔아서 각종 무기를 구입하고 지방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향군회》를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 때로부터 50 보 밖에 달아 놓은 엽전을 명중시키는 백발 백중의 사격 명수로서 그 소문을 린근에 휘날렸다.

그는 외래 침략자들과 국내 봉건 지배 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한 애국적인 모습들을 본받기 위하여 조선 력사와 만국사(萬國史)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각종 애국 문화 잡지들을 탐독하였다.

그는 또한 안으로는 봉건 제도의 부패를 일소하고 밖으로는 선진 문화를 받아 들여 나라를 부강 발전시키자는 《내수 외학》(內修外學)의 구호를 들고 진출한 수 많은 애국 문화 계몽 사상가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1905년에 망국적인 《을사 보호 조약》이 체결되자 분연히 구국 항쟁의 길에 떨쳐 나섰다. 그는 뜻한 바 있어 남포로 이주하고 당시 평안도 지구에 성황을 이룬 유력한 애국 문화 계몽 운동 단체인 《서북 학회》의 애국적인 선각자들과 련계를 맺으며 자기의 가산을 털어서 삼홍 사립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 운동에 필요한 수다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정력을 바쳤다.

그는 여기서 조선 인민의 애국적 전통과 국문을 교수하였으며 때로 부근 농촌에 나가서 계몽도 하고 애국적인 연설도 하였다.

반일 의병 투쟁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 발전하게 된 1901 년에 삼홍 학교를 중심으로 의병 봉기를 준비하여 왔으나 일진회 도당들의 반역 행위로 실패 당하자 나라를 구하려는 꺾을 수 없는 애국심을 가지고 일제의 세력이 미치지 않으며 망명객들이 집중되고 반일 의병 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던 로씨야 땅 해삼위에로 건너 가서 군사 활동을 위한 준비와 애국 문화 계몽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연해주를 무대로 한 반일 의병 운동의 조직자의 한 사람으로 되였으며 우 덕순 의병 부대의 참모장으로써 활동하였다.

그 후 그는 탁월한 군사적 식견을 가지고 수차 자기 의병 부대를 인솔하여 두만강 대안의 경흥과 회령군에 주둔한 일본 수비대 놈들을 습격했으며 그 중 50여 명을 소탕하고 일제의 군사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1909년 6월에는 우 덕순과 함께 무산 지구에서 활동하던 홍 범도 의병 부대를 원조하기 위하여 800여 명의 의병 대오를 지휘하여 함북 국경 연선에 진출하여 5000 명의 적과 조우하여 13일 동안 30여 차의 전투를 통하여 수백명의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 후 강대한 적들과의 정면 충돌이 불리하게 되자 그들은 2~3 명 또는 단신으로 적을 습격 소탕하는 방침을 취했으며 안 중근 자신은 국내에 들어 와 권총과 폭탄으로써 적을 격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1 차적으로 당시 조선 인민의 운동을 롱락하고 《을사 조약》 체결의 장본인이며 고종 퇴위 사건의 주동자인 초대 통감 이등 박문과 매국 역적 리 완용을 두목으로 한 《을사 오적》을 처단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내 잠입을 위한 만단의 준비 공작을 추진시키고 있던 중에 그는 침략의 원흉 이등 박문이 중국 침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1909년 10월에 만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안 중근은 이를 천재 일우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등 박문을 처단하기 위한 3 인조 결사대를 조직하여 10월 19일 해삼위를 출발하여 하르빈으로 떠나 갔다.

거사의 성공적인 진전을 위하여 두 개의 습격 장소를 지정하였는바 장춘과 하르빈 간의 중간 역인 채가구에는 우 덕순 외 1 명을 배치하고 자신은 둘째 번 습격 장소인 하르빈 역을 담당하였다.

10월 26일 아침 하르빈 역두는 무장 군대의 삼엄한 경계로 뒤덮였다. 9시 정각, 침략의 원흉을 태운 《특별 렬차》가 서서히 역 구내에 들어 왔다.

청년 안 중근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에 대한 복수의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권총 자루를 힘 있게 틀어 쥐였다.

이윽고 렬차에서 내린 이등 박문은 짜리 로씨야 재무 대신을 비롯한 각국 외교관들과 인사를 마치고 뒤'이어 그 곳에 정렬하고 있던 로씨야 의장병 대렬을 사열하기 시작하였다.

이등 박문이 사열을 마치고 돌아 서는 순간이였다. 백발 백중의 사격술을 가진 안 중근이 발사한 제 1 탄은 그의 가슴에, 2 탄은 특들에, 3 탄은 복부에 명중되여 침략의 괴수 이등 박문은 그 자리에서 꺼꾸러지고 말았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뒤'이어 그가 쏜 탄알은 한 방의 헛탄도 없이 모리 비서, 가와가미 령사, 다나까 만철 총재 등의 순서로 일제 침략자들을 쏘아 눕혔으며 하르빈 역두를 원쑤 놈들의 더러운 피로 물들이게 하였다.

무장 군대의 삼엄한 경계로 하여 으리으리하던 하르빈 정거장은 삽시에 일대 수라장으로 변하였으며 모였던 침략자의 무리들은 전률과 공포에 떨었다.

조선 침략의 괴수를 처단한 대담 무쌍한 안 중근은 그 현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세 번이나 소리 높이 웨친 다음 왜놈들에게 체포되였다.

려순 감옥에 투옥된 후 왜놈들의 그 어떤 고문에도 그는 자기의 애국적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도리여 그는 공판정에서도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 전쟁을 하르빈에서 하여 이등을 죽인 것이니 결코 자객으로서 한 바가 아니다.

때문에 나는 응당 전쟁 포로로 취급되여야 할 것이지 결코 살인 피고인으로 너이놈 앞에서 취조를 받을 수 없다.》

안 중근의 의젓한 기개 앞에 놈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애국 청년 안 중근은 1910년 3월 26일 32세의 청춘으로 려순 감옥에서 일제 교형리에 의하여 사형 당하였다.

안 중근은 비록 짧은 일생을 마쳤으나 그의 생애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그는 조중 인민의 흉악한 원쑤인 이등 박문



을 대낮에 수백 수천의 군중 앞에서 처단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침으로서 일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으며 침략자들과 그 주구배들을 공포 앞에 전률하게 하였다.

동시에 그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무송에서 공부하실 때 자신의 발기에 의하여 설립된 조선인 학교 개교를 축하하는 연극 《안 중근이 이등 박문을 쏘다》를 공연함에 앞서 하신 말씀에서 애국 청년인 안 중근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또 그로부터 심중한 교훈을 찾을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여러분들은 이제 연극에서 안 중근이가 이등 박문을 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자기의 조국을 빼앗긴 사람이 그것을 강탈해 간 죄 많은 자를 복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 중근이는 강도들의 마수에 희생되였다…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라를 사랑한 안 중근이를 뉘나 없이 동정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데 뭉치자! 안 중근이는 혼자였기에 그러고 그쳤지만 모두 단결하면 우리의 힘도 강해진다. 이등 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 있다.

우리는 그 강도 무리들을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항일 무장 투쟁 전적지를 찾아서》 14 페지에서)

명작 감상

조 명희의 《락동강》에 대하여

김 헌순

단편 소설 《락동강》은 조 명희의 전 창작에서 뿐만 아니라 해방 전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 문학에서 가장 우수한 기념비적 작품의 하나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1920 년대 일제 강점하의 조선 인민의 비통한 운명과 그 운명의 앞길을 개척하는 빛나는 투쟁을 주인공인 혁명 투사 박 성운의 개인적 운명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그 만큼 주인공 박 성운의 형상 속에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내용이 비끼고 있으며 높은 애국주의 사상과 같은 인도주의 기백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 작품이 당대는 물론 오늘에 있어서까지도 그처럼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까닭도 우선은 여기에 기인한다.

작품을 펼치면 락동강 류역의 자연이 한폭의 풍경화마냥 우렷이 떠 오른다.

《락동강 7 백리 길이 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곁가지 강들을 한몸에 뭉치여 바다로 향하여 나아간다. 강을 따라 바둑판 같은 들이 아득하게 열려 있고 그 넓은 들 품안에는 무덤 무덤의 마을이 여기 저기 안겨 있다.

이 강과 이 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강은 길이 길이 흘렀으며 인간도 길이 길이 살아 왔었다. 이 강과 이 인간, 지금 그는 서로 비통하게 헤여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가?》

정든 락동강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왜 지금 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첫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답하기 위하여 작가는 락동강 류역에 살던 인민들의 진정한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다.

락동강'가 무덤무덤 모여 사는 사람들은 몇천년 전에 이 강의 젖줄기를 찾아 정착한 태고적 인간들의 후손들이며 그 곳에서 나서 그 곳에서 퍼진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계급이 생긴 뒤 지주의 착취와 봉건적 질곡 속에서도 자기 향토만은 버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락동강이야말로 그들의 어머니 강이며, 그들을 키워 준 젖줄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 강과 헤여져야만 할 이 기막힌 비극적 운명을 과연 무엇이 가져왔단 말인가? 그것은 곧 일제의 강점이다! 제 나라마저 잃어 버린 비운으로 해서 조선 인민의 향토 생활은 시시각각으로 파탄과 몰락을 강요 당하였고 필경은 고향땅을 빼앗겨 간도로, 료동'벌로 류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천 년을 산 만 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아—하—야

작품 첫 머리에 끼여 있는 이 노래 구절에는 락동강에 얽킨 인민들의 비통하고 구슬픈 감정과 그들의 향토애, 조국애가 얼마나 사무치게 울리고 있는가, 락동강 류역의 이러한 비극적 정황과 벌어질 이야기의 중심에 애국적 혁명 투사 박 성운이 서 있다.

대대로 락동강에서 살아 온 어부의 손자요, 농민의 아들인 그는 처음에는 3.1 봉기에 참가한 반일 투사였었는데 그 후 해외로 방랑하면서 공산주의자로 발전하여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발전은 10월 혁명 승리의 결과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조수처럼 밀려 들어 왔던 당시의 일반적 경향이였다. 즉 그 당시 국내에는 작가의 표현을 빌면 공산주의라는 《한 괴물》이 배회하면서 《지나치는 곳마다 기여 가는 암나비 궁둥이에서 수없는 알이 쏟아지는 셈으로》 알을 쓸어 토동 조합, 농민 조합, 청년 동맹, 형평사 등 근로 단체들을 탄생시켰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사회—력사적 정황 속에서 주인공 박 성운과 그의 애인 로사가 자기 운명과 생활을 개척하면서 어떻게 혁명 투쟁의 길로 들어 서며 또 발전하여 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박 성운은 진정한 혁명 투사—공산주의자로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간고한 투쟁에 몸 바쳐 싸우다가 희생된다. 그의 이러한 개인적 운명으로부터 바로 심오한 인도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이 흘러 나온다.

참된 인도주의자로서의 박 성운의 면모는 로사와의 형상적 관계 속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제 시대에는 가장 천대 받는 백정의 딸이였던 로사로 하여금 근근히 얻은 판임관 벼슬—교원직을 버리게 하고 인민들의 투쟁 대렬에 나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박 성운이였다. 그는 로사에게 늘상 《당신은 최하층에서 터져 나오는 활화산 같아야 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같은 녀성에 대하여, 남성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반항하여야 합니다.》라고 고무하면서 그를 혁명 투사로 키워 냈다.

박 성운은 참으로 열렬한 애국자였다.

박 성운의 조국애는 무엇보다도 자기 향토와 어머니 강 락동강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감옥에서 얻은 중병으로 석방되여 고향 마을로 돌아 올 때 고향 사람들의 말림을 뿌리치고 어린 아이처럼 락동강 물에 손을 잠그며, 배'전을 두드리면서 락동강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나 해외로 다섯 해나 떠돌아 다니는 동안 강을 생각할 때마다 락동강을, 고향 사람들을, 나아가서 조선을 생각하였었다는 그 회상,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 와서 고향 마을에 들렸을 때 황폐한 고향을 서러워 하면서 느티나무를 부여 잡고 운 이야기 등은 조국과 향토를 위하여는 한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싸울 줄 아는 공산주의자들의 순결한 애국주의 사상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박 성운은 또한 원칙성이 강하고 어떤 곤난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강철의 의지력과 비타협적인 성격으로 인상적이다.

그는 원래 《혁명가는 생 무쇠쪽 같은 시퍼런 의지의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생활의 지표》를 간직한 사람이였거니와 그 타협 없는 원칙성은 혁명 활동 첫 시기부터 뚜렷이 나타났다. 즉 그가 해외에서 돌아 왔을 때 서울에는 《일에는 힘을 아니 쓰고 아무 주의 주장의 틀림도 없이, 공연히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동지끼리 다투기만 일삼는》, 말하자면 파쟁에만 눈이 빨건 종파 분자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들과는 애초부터 립장을 달리하였던 박 성운은 혁명 운동을 통일하고 한 걸음 높은 사회주의 운동을 위하여 조언도 하고 론문도 써 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 그는 분연히 《대중 속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고향 마을 사람들 속에 굳건히 뿌리 박고 대중 투쟁을 조직하면서 싸워 나갔다.

농촌에서의 혁명 활동은 당시의 조건에서는 아주 곤난하였으며 뜻하지 않은 희생과 어려운 장애를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럴수록 그는 굴하지 않고 오직 혁명 승리의 미래를 확신성

있게 내다 보면서 나아갔다. 박 성운의 내면 세계의 극적 체험이 그토록 심각하게 우리 머리에 남게 되는 것은 이러한 투쟁의 간고한 조건 하에서도 끝내 자기의 혁명적 의지와 원칙성을 고수하려는 영웅적 지향 때문이다.

그리하여 작품 마감에서 투사 박 성운의 운명이 비록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절망적이며 해결의 길이 막힌 비극이 아니라 영웅적 투사의 락천적 비극으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박 성운은 스스로 한 몸을 희생할 것을 각오한 투사였으며 그 만큼 죽는 순간까지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기여하였다는 자랑과 또 자기가 죽은 뒤에 인민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안은 채 고요히 세상을 하직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혁명 투사 박 성운은 죽었지만 그가 뿌린 혁명의 씨앗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앞날에 그것이 자라나 잎이 피고 꽃이 필 날이 오고야 말리라! 박 성운의 애인 로사의 운명에 대한 작가의 함축 있는 암시는 바로 이것을 말해 준다.

《이 해의 첫 눈이 푸뜩푸뜩 날리는 어느날 늦은 아침, 구포역에서 차가 떠나서 북으로 움직여 갈 때이다. 기차가 들녘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객차 안 들창으로 하염없이 바깥을 내여다 보고 앉은 녀성이 하나 있었다. 그는 로사이다. 아마 그는 돌아간 애인이 밟던 길을 자기도 한 번 밟아 보려는 뜻인가 보다. 그러나 필경에는 그도 멀지 않아서 다시 잊지 못할 이 땅으로 돌아 올 날이 있겠지》

이와 같이 단편 소설 《락동강》은 그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혁명에 충직한 공산주의자의 성격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되였다.

박 성운이 그처럼 희구하며 그것을 위해 싸운 락동강 류역에 아직 꽃은 피지 않고 있으며 아직 봄은 찾아 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왜놈들을 대신한 미제 침략자들이 그 땅에 도사리고 앉아 왜놈보다 악착스레 악행을 감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락동강! 거기에도 미구에 꽃은 필 것이며 인민의 봄은 도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락동강 류역에서는 그 때보다 더 많은 박 성운이며 로사들이 암담한 현실을 항거하여 미제 야수들과 그 주구들의 매국 행위를 불사르기 위하여 끊임 없이 일어나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락동강에 봄은 올 것이다.

그것은 락동강의 흐름처럼 반드시 오고야 말 진리의 약속이다.

청년생활 소사전

태양은 지구에 얼마만한 열을 공급해 주는가?

태양 광선은 수직으로 놓인 지구 표면 1 평방 메터에 대해서 1 분 동안에 약 1 천 카로리의 열을 공급한다.

지구 표면에 공급되는 전체 열량으로써는 1분간에 약 10 조 톤이나 되는 막대한 량의 물을 끓일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을 전력으로 끓이려면 170 조 키로 왓트시의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태양은 막대한 에네르기의 원천으로 된다.

오래 동안 수 많은 학자들은 태양 에네르기를 직접 인민 경제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분야에서 실천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게 해결되였다. 례하면 반도체 건전지를 발명하여 태양의 빛 에네르기를 전기 에네르기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오목 거울을 리용함으로써 물을 끓여 증기를 얻고 있다.

또한 태양 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기억력을 배양하려면

편집부 앞

지금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학습 열의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아직도 《나는 원래 기억력이 나빠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학습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청년들의 학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편집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억력이 나쁜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기억력을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남도 고원군 민청원 김 규 식

편집부는 김 규식 동무의 질문과 관련한 황 영식 동지의 글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기억은 인간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기억 현상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과거와 련결될 수 없으며 현재의 생활은 물거품과도 같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생활의 매 순간은 그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를 구면의 사람으로 다시 대하게 되는 것도, 이전에 학습한 수학 공식을 생각해 내는 것도, 이전에 습득한 기술을 생산 활동에 도입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전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억에 남겨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서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그 내용을 따로 외우려고 보는 것이 아니며 길을 걸을 때 거리의 모습, 오가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려고 하지 않으나 시간이 퍽 경과한 후에도 영화나 연극의 내용, 거리의 모습,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일상 생활에서 많은 것을 《부지 불식간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과 함께 목적 의식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목적 의식적인 기억은 학습, 기술 습득 등에서 적용되는바 이것 없이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머리 속에 재껴 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에는 먼저 그 내용을 리해하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반복해서 읽거나 또 직접 실천해 보면서 따로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 흔히 사람들 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읽고도 지식의 내용을 다 따로 외울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읽고도 따로 외우지 못하며 또 기억한 것도 곧 잊어버립니다.

이로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듯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훌륭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나쁜 기억력을 가지고 탄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갓난 아이들은 기억의 능력을 가지지 못 합니다. 이것은 아기들이 생 후 반년을 지나서야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으로써 증명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에 기억의 차이는 왜 나타나게 될가요?

중요하게는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기억하는 방법에 따라 빨리 그리고 공고하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력을 배양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을 빨리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억하는 사람이 옳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재미 있는 실례를 하나 들어 봅시다. 어떤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두 학생에게 꼭 같은 문장을 따로 외울 과제를 제시하면서 한 학생에게는 다음 날 외워 바쳐야 하며 다른 학생에게는 1 주일 후에 외워 바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첫 학생이 외워 바치러 왔을 때 구실을 붙여서 둘째 학생과 함께 1 주일 후에 외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둘째 학생이 첫째 학생보다 몇배나 더 정확하게 외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였겠습니까? 이것은 둘째 학생이 될수록 오래 동안 기억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공고하게 기억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학습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학습, 기술 습득을 혁명 과업으로 인식하고 이악하게 달라 붙으면 누구나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오래 동안 머리에 남아 있도록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배양하려면 반복과 복습을 잘 배합하여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복과 복습에서는 그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과 반복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며 도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 나서 한 번 학습하고 오후에 한 번 반복해서 학습한 다음 저녁에 또다시 학습한다면 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보다 반복 회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반복할 때에도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 내려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읽고는 읽은 내용을 외워 보고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외워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습 과제의 분량에 따라서 학습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도 리해를 쉽게 하며 기억을 공고히 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물론 분량이 적은 학습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꺼번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전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내용 상으로 묶어져 있는 몇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그 부분을 하나 하나 학습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분습법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습법과 분습법을 합친 결합법입니다.

결합법에서는 처음에 학습 자료 전체를 통독하여 익힌 다음에 그것을 의미 상 묶어져 있는 몇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차례 차례 학습하고 나중에 전체를 다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한다면 학습 내용을 빨리 리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오래 동안 기억에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배양하자면 학습 내용을 부문별로 잘 분류하고 옳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같은 분량의 내용도 그것을 체계화하고 분류하여 학습하지 않고 통채로 외운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암송한 다음에도 곧 잊어 버리게 됩니다.

분류와 체계화에 있어서는 우선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리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리해에 기초하여서만 분류와 체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애 학습 내용을 리해하고 내용 상 서로 류사한 것들, 또는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갈라 놓고 그것을 의미 상 련결을 따라 체계화하여 암송한다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공고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의 속도와 망각률은 학습 자료를 리해하고 암송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리해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암송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리해하고 기억할 때는 노력하지 않고도 전체 내용을 쉽게 암송할 수 있으나 내용을 리해하지 않고 따로 외우려고 하면 몇 갑절이나 시간이 더디고 암기한 다음에는 빨리 망각하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에 의하면 학습 내용을 잘 리해하고 학습하는 론리적인 기억은 기계적인 기억보다 3 배나 더 반복 회수를 절약할 수 있으며 망각률이 기계적 기억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학습에서 언제나 그 내용을 철저히 리해하여야 하며 덮어 놓고 암송하는 학습 방법은 버려야 합니다.

실험적 자료에 의하면 망각은 기억 직후에 제일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 전날 밤 취침 전에 읽은 내용을 망각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전에 읽은 내용을 기억에 남겨 두는 수가 많습니다.

늙은이들의 기억이 해체되는 과정도 이러합니다. 늙은이들은 최근에 있은 일은 좀처럼 회상할 수 없으나 옛날 일은 잘 회상합니다. 늙은이들이 옛'이야기를 즐기는 리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한 직후에 망각이 가장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은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억 직후에 복습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상과 같이 기억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이러한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가 병적인 기억 장애를 가지지 않는 이상 기억의 법칙을 알고 그에 부합되게 기억을 조직한다면 자기의 기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무들은 나이가 좀 들면 인제는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없어져 공부를 하기는 다 글렀다고 진지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쇠퇴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심리 학자는 자기의 기억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가 60세에 가까와서도 기억력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맑스는 그가 55세 되던 때에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그것을 훌륭하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력은 모든 사물 현상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량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40 세도 되지 않은 청년들이 기억력이 쇠퇴되였다고 하는 것은 학습을 게을르게 하는 구실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저절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청년들은 기억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배움이란 것은 잘못 된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미 깨달았다면 그 잘못을 수치로 여기고 뉘우치며 고쳐야 한다. 이것이 배움이다.》

—리 덕무—



두번째 생일

내가 32선으로 그립던 조국으로 돌아 온지도 어언간 4 년이 지났다. 비록 길지 않은 세월이긴 하지만 이 기간은 나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나날이였다.

나는 복된 오늘을 두고 지난날의 처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에 목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금으로부터 24 년 전 나는 제주도 조천면 신촌리의 한 빈한한 농민의 아들로 태여났었다. 원래가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우리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메마른 밭고랑에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극성스레 일하였지만 가난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야말로 굶기를 부자'집 밥 먹듯 하였다.

여덟 살 때 겨우 나는 신촌 국민 학교에 다니게 되였는데 어머니가 나의 월사금 때문에 빈 쌀독을 긁어 내며 눈물 짓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안겨 온다. 그러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에는 또 하나의 변고가 생겼다.

그 때 왜놈들을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 놈들은 매일 같이 마을에 나타나 재물을 략탈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그리 하여 우리 고향 제주도는 살벌한 지옥으로 되였다. 그런데 이 때 놈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하여 나의 형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다. 그렇게 되자 형은 몰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날부터 미제 승냥이들과 괴뢰 순경놈들은 련일 우리 집에 찾아 와 행패를 하였다. 놈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혹독하게 고문하였고 아들이 간 곳을 대라고 위협하였다. 더는 그 곳에서 살 수 없게 되였다. 그 후 나는 끝내 그 곳을 탈출하여 누님이 계신 부산으로 갔다.

나는 거기서 행여나 직업을 얻을가 하는 생각에 부산 시내를 향방 없이 돌아 다니였다. 그러나 실업자들이 욱실거리는 남조선 사회에서 어린 나이에 직업을 구하는 일이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었었다. 굶주린 창자를 움켜 쥐고 어둑 컴컴한 부산 시내의 거리거리를 돌아 다니던 그 때의 처지에 대해서 다 말해서 무엇하랴!

나의 어린 가슴은 북받치는 울분으로 터지는듯 하였다. 나는 세상을 저주하였다. 이 무서운 현실을 피하여 어디론가 멀리 도망 가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뜻밖에도 일본에 간 형으로부터 곧 일본으로 건너 오라는 편지가 왔다. 나는 일본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1959 년 9월 몇명의 청년들과 함께 자그마한 쪽배를 타고 낯설은 일본으로 밀항하게 되였다. 그 때 내 나이는 열 아홉 살이였었다.

일본 땅에 도착한 나는 줄곧 오사까에 있는 형에게로 찾아 갔다. 형은 이 때 자기 집 방안에서 수공업적으로 재봉기 부속품을 만들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낯선 일본 땅에서의 나의 빼저린 첫 체험은 이국살이의 설음이였다. 차디찬 민족적 멸시와 차별 대우—나는 이런 것을 온 몸으로 느꼈다.

조선 사람은 취직도 뜻대로 할 수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게다가 한 마디의 왜말조차 모르는 나는 마음 대로 밖에 나가 다닐 수조차 없었다. 열 아홉 살 한창 나이에 온 종일 조롱에 든 새처럼 집에 갇혀 있을라니 속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 때처럼 통절히 느껴 본 때는 없었다. 게다가 우리 형의 집 생활은 말이 아니였다. 밤 12시, 때로는 새벽 2 시까지 무더운 여름날 방안에 화로'불을 피워 놓고 《미싱 스프링》(재봉기 부속품)을 달구어 만들어 팔았으나 밥 먹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날그날 벌어서 사는 하루살이 생활에 불과하였다. 이럴 때마다 나는 마음 속으로 통절히 부르짖었다.

《조국! 조국이 있어야 한다. 조국이 없는 망국노의 생활은 마소보다도 못 한 것이다.》

이 때부터 나에게는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그리는 불 같은 념원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던 중 드디여 나의 불같은 념원이 실현되는 날이 왔다.

1960년 7월, 나는 32선으로 그리운 조국의 품에 돌아 오게 되였다. 그 때의 감격을 무엇에 비할 수 있으랴!

누가 만약 나에게 생일을 묻는다면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나의 생일은 내가 그리운 조국의 품에 돌아 온 날 1960년 7월 31일이라고—

그렇다! 진정 나는 이 때부터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였다.

조국에 돌아 온 며칠 후였다. 한 간부 동지가 나를 부르더니 앞날의 지망에 대하여 상냥하게 물어 보았다. 나는 그 때 나의 희망을 솔직히 말씀 드렸다.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 때 간부 동지는 싱글싱글 웃더니 어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해 주었다.

과연 며칠 후에 나는 덕천 고급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였다. 나는 철 따라 교복도 받고 수업료도 없이 무료로 공부하게 되였다.

어릴 시절부터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나는 그 날 밤, 온 밤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자꾸만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렸다.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덕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평양 정밀 기계 공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나라 배움의 최고 전당인 김 일성 종합 대학 정치 경제학과(야간)에 입학하였다.

보람찬 학습과 로동의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나의 가슴 속에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 준 영광스러운 조국에 무엇이든 선물하여야 한다》는 생각부터 앞섰다. 나는 밤을 밝혀 가며 일했다. 동무들이 나의 일을 적극 도와 주었다. 그리 하여 3 개월만에 드디여 나는 위치 게지 납빈 지구를 완성해 냈다. 그 때의 기쁨을 무엇에 비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나는 이 자그마한 첫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금년 초에 들어 와서 나는 또다시 베아링 위치 게지를 창안하는 사업에 달라 붙었다. 여러 차례에 걸치는 시험을 해 보았으나 좀처럼 전진이 없었다. 정밀한 치수를 보장해야만 되는 R형과 H형 부문에서 천분의 2 미리의 공차가 생기여 애먹었다. 나는 다시 정확한 계산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밤 늦게까지 고심해도 성공 못한 채 그 날 집으로 돌아 갔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직장에서는 기술자들을 보내여 나의 창안 사업을 방조해 주었다. 이런 고마운 집단 속에서 나의 일은 더 성수가 났다. 나는 끝내 베아링 위치 게지의 창안도를 성공하였다. 동무들은 이 일을 진정으로 자기의 성과처럼 기뻐했다. 그 후에도 나는 도합 4 종의 창의 고안을 완성했으며 금년도 년간 계획을 8월 20일에 완수하였다.

참말이지 오늘 나는 따뜻한 조국의 품'속에 안겨 얼마나 멀리 앞으로 달리여 왔는가! 비단 기술이나 학습에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였다. 나의 정치적 식견은 날로 높아져 갔으며 지난 해에는 우리 직장 제2 초급 민청 단체 부위원장으로까지 선거되였다.

이 모든 영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남김 없이 바치여 조국 통일의 그 날을 더욱 앞당길 결의에 한층 더 불타 오른다. 그리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제주도에도 우리의 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

나는 지난 날 짧은 생애에서나마 세 제도를 살아 온 사람이기에 우리 조국의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여 오늘의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거듭 조국의 품에 안긴 1960년 7월 31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 그것은 나의 두 번째 생일이였었다.

평양 정밀 기계 공장

신 치 범



아마를 뽑소 외 1 편

혜산 제지 공장 민청원 김 윤철

아마를 뽑소 아마를 뽑소
두메산촌 큰 애기들 아마를 뽑소.
붉은 해 이고 십리등판 오르내리며
한 대 두 대 정성 들여 아마를 뽑소.

까투리 알을 까던 쑥새발을 거두고
당의 뜻을 받들어 비단 궁전 섰으니
불이 붙었다오, 큰 애기들 가슴에
어서 짜고 싶다오, 오색 비단을—

토스레 치마'폭이 눈물에 절던
정배지의 한적한 이 두메에서
생각이나 했겠소? 비단 궁전을
꿈에나 보았겠소? 은비단 금비단을.

북방의 목화는 '아마라고 하신
그 이의 높은 뜻을 가슴마다 새기고
아마사 한 발 두 발 앞내에 휘휘 저어
청실홍실 가지가지 고운색 들이면
금강 선녀 타고 오는 무지개 되려니

에루화 복을 받은 두메산촌 큰 애기들
얼시구나 춤을 추며 아마를 뽑소,
사회주의 지상 락원 아름답게 수놓을
행복의 비단필을 아름아름 거두오.

《심장 속에 있었네》

하루 일 흐뭇하게 끝마쳤으니
목달개도 갈아 달고 새 내의도 입어 보고
누이의 경쟁 편지 회답도 써야지
우리네 합숙 호실 번거로운데

문을 차고 들어 서는 최 동무의 웨침
《동무들 성공이요, 성공》

우르르 모여 드는 한복판에
꼬기꼬기 색낡은 도면과 함께
신기해라 《자동 중해 검척기》
서른 명의 로력도 더 절약한다누나…

오! 축하한다 최 동무여!
한 사람의 로력도 더 아끼여
생산 계획 두세 배로 넘치려는 그 념원,
불 같은 희망이 이루어졌음이여.

창안품을 안고 도는 벗들을 헤치며
조용하라 웨치는 《통신원》동무,
이 자랑을 세상에 어서 알리자고
이것 저것 서두 없이 캐여 묻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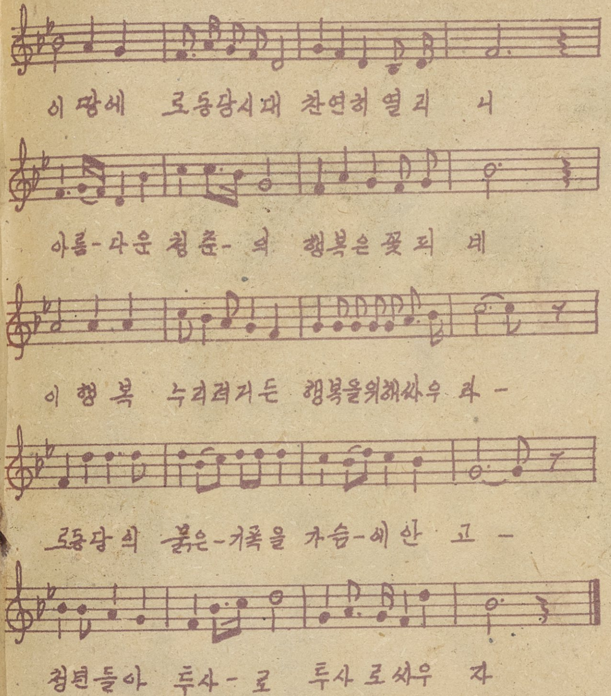
이자 겨우 야간 기술 학교 다니며
어떻게 이 훌륭한 창안을 했느냐고
열 세 번 실패에 지샌 밤은 얼마?!
자재는 어데서 얻었느냐고—

벗들아 우리 모두 조용히 들어 보자
스스럼 없는 최 동무의 대답을
—기술도 자재도 심장 속에 있었네
자력 갱생 뜻을 새긴 심장 속에 말야.
그리고 《연결 폭탄》 만든 그 분들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다네.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출판사 인쇄 동평양 인쇄 공장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전화 (3858 — 8385)
1963년 9월 11일 인쇄 1963년 9월 21일 발행
값 35 전 ㄱ—330535

청년 행진곡

김학연 시
한시형 곡



2. 고난의 긴긴 력사 어찌 잊으랴
어제날의 피눈물을 어찌 잊으랴
그세상 저주하거든 이제도 사수하여라
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우리 힘이니
청년들아 그 밑에서 청춘을 빛내자

3. 내조국 금수강산에 태양이 비치니
청춘의 푸른희망 가슴에 넘치네
이 희망 빛내려거든 미래를 위하여 싸우라
로동당의 붉은 기치가 가리키는 곳
청년들이 어디서나 청춘을 바치자





한 공화국 기'발에 깃·든 이야기
그림 오 락삼